

20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91.20	↑ 코스닥	813.08
	(+21.35)		(+14.02)
↓ 금리 (연이자율)	3.667	↓ 환율 (원/달러)	1291.60
	(-0.014)		(-5.30)

# metro® 경제



## 생존·ESG경영 위한 필수과제... DX ‘혁신의 트리거’

(디지털 전환) (방아쇠)

### ‘디지털 전환’ 사활

전세계가 디지털 전환(DX)에 사활을 걸었다. 공장은 물론 창고와 상업 공간, 사무실과 까지도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챗 GPT로 촉발된 인공지능(AI) 활용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자리잡았고, 미래 먹거리로는 빼놓을 수 없는 과제가 됐다. DX가 ‘혁신의 트리거’가 된 셈이다.

DX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업무와 사회 구조 등을 혁신하는 것을 뜻한다. 초고속 통신과 사물 인터넷(IoT), AI와 로봇등을 통해 기존 업무를 디지털로 대체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스마트팩토리와 물류 자동화, 무인 점포와 사무 자동화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다.

DX는 단순히 사업 효율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ESG 경영에서도 필수적인 과제로 꼽힌다. 종이를 비롯한 자원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근무환경 개선으로 근로자 복지도 확대할 수 있어서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에 DX 전환을 지원하며 상생하려는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DX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필수가 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파견한 전문가들이 화진산업 마스크 제조 공정을 확인하고 있다. /삼성전자

### 현대차그룹 ‘디지털 트윈’ 고도화 연내 싱가포르에 ‘HMGICS’ 완공

LG전자·LS그룹, 단순사무 대체 RPA 성공적 도입 생산성 극대화

현대자동차 등은 일찌감치 공장을 자동화하는데 힘을 쏟아왔다. 로봇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모든 사물을 모빌리티화하는 기술을 개발해 ‘디지털 트윈’을 고도화, 올해말 싱가포르에 혁신센터인 ‘HMGICS’ 완공을 앞두고 있다. LG전자도 창원과 미국 테네시 공장을 완전히 스마트 팩토리로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AI를 활용해 사무와 연구 업무까지도 자동화하고 있다. LG전자와 LS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 조감도. /현대자동차그룹

그룹 등은 최근 단순 사무 업무를 대체할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생산성을 극대화했다. 반도체와 바이오 등 업계에서도 소재를 연구하는 AI를 활용해 연구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X는 미래 먹거리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통신사들은 5G와 함께 DX 솔루션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다양한 상품을 내놨다. LG 유플러스가 KT에 이동통신 가입 점유율을 앞선 것도 B2B 등 사물 회선을 크게 늘렸던 덕분이었다. 삼성SDS와 LG CNS, SK C&C 등 SI 업계도 클라우드를 넘어서 DX 솔루션에 힘을 쏟고 있다. LG전자가 광양제철소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실증 사업을 성공시키는 등 산업계에서도 DX를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상태다.

글로벌 빅테크도 AI로 희비가 갈렸다. 구글과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이 치열하게 경쟁하던 사이, MS가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와 협력하면서 시장을 뒤흔기 시작했다. 일부 업종에서는 DX로 생사가 갈리는 모습도 나타났다. 사무기기 업계가 대표적.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비대면 업무가 확대되면서 시장이 완전히 침체된 사이, 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BI)은 발빠르게 DX로 체질을 개선하면서 새로운 시대에서도 사무실을 지킬 수 있었다.

기업들은 DX 역량을 활용해 ‘상생’도 실현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주요 기업들이 스마트팩토리 구축사업에 참여해 여러 협력사들에 DX를 지원하고 있다. <2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내년 반도체 업황개선 수출 5.6% 상승 전망

내년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대비 5.6% 증가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자동차 수출 규모는 유지되는 한편, 정보통신 기기 수요도 살아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연구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산업 전망’을 발표했다.

우선, 수출은 전년 대비 5.6% 증가, 수입은 0.7% 감소로 전망됐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업황 개선, 주요 기업의 감산정책 영향에 따른 수출단가 회복, 올해 수출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며 두 자릿수(15.9%) 증가가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그간 큰 감소세를 보였던 중국·아세안 지역 수출이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점차 개선되며 수출 회복세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 산업연구원, 경제·산업 전망

반도체 수출은 15.9% 증가하고 수입, 전년 대비 0.7% 줄어든 등 연간 무역흑자 265억 달러 전망

유가와 환율 변동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봤다.

수입은 수출 업황 개선에 따른 중간재 수입 증가와 국제유가 안정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년 대비 0.7% 감소로 예상했다.

수출 업황 개선으로 중간재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액 증가가 예상되며, 수출 개선 흐름에 따라 상반기 대비 하반기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수출 규모가 확대되고, 수입은 감소하면서 내년 무역수지는 연간 265억 달러 수준 흑자가 예상된다.

### ◆반도체(15.9%)·정보통신(12.7)·바이오헬스(4.6%) 수출 증가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올해 4분기부터 나타난 글로벌 ICT 수요 회복세가 이어지고 전년도 기저효과 영향으로 IT신산업군이 수출 확대를 견인하며 전년 대비 5.2% 증가한 5047억 달러로 전망됐다. 13대 주력산업 수출액은 2022년 5365억 달러에서 올해 4799억 달러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2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 김주현 “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경감하라”

### 금융위-금융지주회장 간담회 “동네·골목상권 붕괴 우려 상황 금리 직접적 낮춰 체감 가능해야”

금융지주사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발생할 이자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두고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20일 8대 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이자부담으로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은행권의 이익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리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당기순이익은 2019년 13조1000억원에서 2020년 11조5000억원, 2021년 13조9000억원,

2022년 17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회의 황제세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수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했을 때 금융산업을 국회 입법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금리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황제세는 시장상황에 따라 예상치 못한 큰 이익을 본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융지주가 내놓는 상생금융방안에 따라 황제세 법안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확실한 상생금융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4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한동훈 총선 채비...출마지역·역할의 건 분분 /사진 뉴시스  
▲민주노총 의리 여론조사서 10명 중 7명 “노란투법 필요” /사진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영국 국민 방문 출국  
▲민주,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에 “명백한 잘못...국민·당원께 사과”



▲경기도선관위, 24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설명회 개최 /사진 뉴시스  
▲여당 “행정정산명장애, 두 번 발생 않도록 근본 대책 마련할 것”

# 尹, 영국 국민방문... 공급망 재편 등 FTA 개선방안 논의

23일까지 3박4일 일정 출국  
英 시장 진출 韓기업 기반확대 구상  
영국 의회서 영어연설로 비전 제시  
수낙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간 영국을 국민방문해 공급망·기술 협력 강화 등 신시장 확보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영국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장호진 외교부 1차관,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 대사, 게리스 위어 주한영국 대사대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의 배웅을 받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민방문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즉위 후 첫 국민 초청이자,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민방문을 통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방안을 논의해 브렉시트 이후 공급망을 재편하



영국을 국민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고 있는 영국 시장에 한국 기업의 진출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6위, 유럽 2위의 경제 대국이자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영국과 협력 수준을 높여 신시장을 확보하고 공급망·기술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20일(현지시간) 늦

은 오후에 영국 런던에 도착해 동포간담회를 시작으로 첫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21일에는 이번 영국방문의 하이라이트인 국민 일정이 공식환영식부터 시작된다. 윌리엄 왕세자비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의 숙소까지 영접하러 온 뒤, 왕세자비 부부의 안내로 공식환영식장인 호스가드(Horse Guards) 광장까지 함께 이동한다.

최고 존경의 의미인 예포 41발 발사와 왕실 근위대를 사열하고, 윤 대통령은 환영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찰스 3세 국왕과 함께 버킹엄궁까지 마차 행진을 한다.

같은 날 오후 윤 대통령은 영국 의회에서 영어 연설을 통해 양국 관계 성장의 역사를 돌아보고, 양국이 함께 지향할 미래 비전과 협력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와 관련 이도은 대변인은 “현지 언어로 연설하는 것은 정치인뿐 아니라 그 나라 국민 마음에 다가가는 시도”라고 부연했다.

다음날인 22일에는 영국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하는 ‘한영 비즈니스 포럼’을 비롯해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의정회담 등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우리의 주요 교역, 투자 대상국이자 전략적 통상 파트너인 영국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동행 사 계기에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첨단 산업, 에너지, 금융 등의 분야에서 수십건의 협력 양해각서(MOU)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영국왕립학회에서 개최하는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 미래포럼’에 참석해 인류 공영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 다우닝가 10번지에 위치한 총리 관저에서 수낙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디지털·AI, 사이버안보, 원전, 방산, 바이오, 우주, 반도체,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등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양국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한영 어코드’ 문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이번 국민방문에 동행한 경제사절단과 함께 길드홀에서 열리는 런던금융특구 시장 주최 만찬에 참석한다.

국민방문 마지막 날인 23일에 윤 대통령은 ‘처칠 위 룸’을 방문한 후 다시 버킹엄궁으로 이동해 찰스 국왕과 작별 인사를 통해 영국의 모든 국민 일정을 마무리하고,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위해 곧바로 프랑스로 이동한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 T1, 롤드컵 우승... ‘조력자’ SKT 눈길

통산 4번째... 7년만에 되찾아  
‘페이커’ 이상혁 발굴, 잇단 우승

SKT T1이 다시 롤드컵을 거머쥐면서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SK텔레콤의 역할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SK텔레콤도 T1 우승을 기념해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T T1이 19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2023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다시 세계 최고 자리를 탈환했다. 2016년 이후 7년만, 통산 4번째 우승이다.

T1은 SK텔레콤이 운영하는 e스포츠 팀으로, 2004년 e스포츠 태동기 창단해 e스포츠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특히 2013년에는 자타공인 최고 실력을 갖춘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발굴해 연달아 롤드컵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SKT는 T1을 다방면으로 지원해왔다. 국내 처음으로 유망주 시스템을 도입해 ‘T1 루키즈’를 운영하며 이번 롤드



지난 19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3 리그 오브 레전드(LoL·롤)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한 T1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컵 우승 공신인 ‘제우스’ 최우제 선수와 ‘오너’ 문현준 선수, ‘구마유시’ 이민형 선수 등을 육성해냈다.

이를 기반으로 T1은 2019년 세계적인 기업 캠페인에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며 글로벌 e스포츠 전문 기업으로 도약했다. 2021년 인적 분할 후 SK스퀘어에 포트폴리오사로 재편됐다.

SKT는 e스포츠 발전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다. 2005년부터 한국 e스포츠협회 회장사로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SKT는 T1을 분리한 후에도 T1뿐 아니라 e스포츠를 후원하고 있다. ‘아마추어 스포츠 후원 및 미래지향형 스포츠 후원’이란 전략 하에 한국 e스포츠 협회와 e스포츠 국가대표팀을 도왔다.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롤 종목 금메달을 획득한 데에도 SKT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김재용 기자 juk@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中企, 비용문제 등에 DX 도입 어려워

>> 1면 ‘생존·ESG경영 위한’서 계속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스크 등 위생 용품 생산량을 단시간에 대폭 늘릴 수 있었던 데에도 이 사업 영향이 컸다. 종이를 없애는 ‘페이퍼리스’ 방식은 이미 기업 전반에 당연한 문화로 자리잡았고, 조만간 웨어러블 로봇을 통해 업무 위험성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DX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다. 당장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비용과 난이도 등 어려움으로 DX를 시도하지 못하거나 실패했다. 최근 ‘정부24’ 앱 다운로드나 공공 앱 실패 등에서 보이듯 정부도 조직 경직성과 전문성 미흡 등으로 DX에 그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는 22일 오후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뉴테크놀로지포럼 ‘DX - 혁신의 트리거’를 열고 DX 현황과 성과, 한계와 과제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하토가이 준 한국후지필름BI 대표가 DX 여정을 소개하는 기조연설을 맡았고, 이진복 MS 상무가 생성형 AI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과 사례를 공유하는 강연을 준비했다. 이어서 오경석 영남대학교 교수가 정부의 DX 한계와 극복 방안, 김상윤 중앙대학교 교수가 DX 시대에 새로운 경쟁력을 설명한다. /김재용 기자 juk@

## 내년 연간성장률 2.0%, 소폭 상승 전망

>> 1면 ‘내년 반도체 업황개선’서 계속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성 요인  
환율, 달러당 1280원 내외 예상

반도체를 비롯해, 정보통신기기(12.7%), 바이오헬스(4.6%) 등 IT신산업 수출 증가가 우리 경제의 수출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나 전기차 보조금 축소 영향으로 이차전지 수출은 -2.6%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이밖에 일반기계(1.0%), 자동차(2.0%)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조선(10.2%)은 고가 선박 인도 증가로 두자릿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항구 수요 증가 등으로 철강(1.4%), 섬유(2.0%), 정유(1.0%) 수출 증가가 예상되나, 석유화학(-0.5%)의 경우 단가 하락 영향으로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수출 대상국 중 미국, 유럽 수요는 인프라 구축과 공급망 내재화 등 영향으로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의 경우는 경기 하방압력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수출이 감소할 전망이다.

◆성장률 2.0%, 민간소비 1.9% 증가  
내년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은 2.0%,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1.9%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경제는 IT경기의 안전한 회복세에 힘입은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고금리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됨에 따른 소비 성장세 둔화와 건설투자 위축으로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대외적 불확실성 요인으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진정 여부와 주요국들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 부문의 불안



부산 남구 신산대 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정성,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반도체 경기의 회복 속도,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의 현실화가 꼽힌다.

민간소비는 고금리와 높은 가계부채로 인해 이자부담 확대, 금융 부문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고물가에 따른 구매력 약화 등이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봤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83달러, 환율은 달러당 1280원 내외로 예상됐다. 유가는 원유 생산국의 공급 증가 가능성이 가격 상승을 제한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급 우려가 완화되면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같은 전망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제한적 성장이 이뤄지고 세계교역이 전년(2023년)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로 반등한다는 전제에 따른 것으로 대내외 여건에 따른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이재윤 실장은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추세에 따른 고기능 제품의 수요 확대와 관련 인프라 투자도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통화 긴축 기조와 국제 정세 불확실성은 수요 회복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현대차그룹, 글로벌 실적 견조... '친환경·현지화' 전략 주효

3분기 북미공장 가동률 100% 넘겨  
英 점유율 10% 돌파... 최다판매 전망  
아이오닉5N 등 전기차 라인업 확대

현대자동차그룹이 '친환경·현지화'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인 판매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기침체를 비롯해 고금리에 따른 소비 위축 지속 등의 악재에도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의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바라볼 정도다. 중국에서는 현지 맞춤형 전기차 등을 출시하며 반등을 예고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올 3분기 북미 공장에서 평균 가동률 100%를 넘기며 역대 최대 판매량 기록을 예고하고 있다. 현대차 북미 공장 생산 능력은 27만7700대다. 생산 실적은 27만830대로 가동률 100.2%를 기록했다. 기아도 23만 1000대의 생산 능력에 27만1150대를 생산하며 가동률 117.4%로 현대차를 앞질렀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앨라배마주



현대차 투싼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2006년 완공)와 조지아주(2009년 완공)에 각각 공장을 두고 있으며 이같은 상승세를 연말까지 이어갈 경우 올해 북미 시장에서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다.

이같은 성장 배경에는 현대차·기아의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인기가 자리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9월 미국에서 친환경차를 전년 동월 대비 128% 증가한 2만5701대를 판매했다.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8%까지 증가했다. 결국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으로 판매량

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변의 우려를 잠재웠다.

또 현대차그룹은 유럽 자동차 산업 수요 2위 국가인 영국에서도 전동화 모델을 앞세워 올해 최고 성적 달성을 예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전동화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영국 시장 공략을 위해 폭넓은 친환경차 라인업을 내놓고 있다.

영국자동차공업협회(SMMT)에 따르면 현대차·기아 등 현대차그룹 완성차 브랜드는 올해 1~10월 영국 자동차(승용 기준) 시장에서 전년 동기(15만

9541대) 대비 8.7% 증가한 17만3428대를 판매하며 점유율 10.8%를 기록했다. 지금까지의 누적 판매 성장률이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올해 영국 판매는 종전 최다인 2017년(18만6625대) 기록을 넘어설 전망이다.

브랜드별로는 현대차가 올해 누적 7만5456대를 팔아 영국 전체 시장에서 8위를 차지했다. 기아는 9만6784대로 4위에 이름을 올리며 현지 최상위권 브랜드로 도약했다. 2021년 영국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제네시스는 1188대를 판매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연간 판매 1000대를 달성했다. 모델별 판매 순위에서는 기아 스포티지(3만1575대)와 현대차 투싼(2만9990대)이 각각 4, 6위를 기록 중이다. 두 모델 모두 지난해 말과 비교해 순위(스포티지 6위·투싼 7위)를 끌어올렸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우수한 상품성을 보유한 다양한 친환경차 라인업을 추가해 영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도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중국승용차시장정보분석회(CPC

A)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올 10월까지 중국 시장에서 총 26만2976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대비 8.9% 감소한 수치이다. 양사 합산 지난달 월간 판매량은 전년 대비 7.7% 하락한 2만622대에 그쳤다. 그러나 현대차·기아는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트렌드에 맞춰 고성능과 친환경 모델을 잇따라 선보일 방침이다.

현대차는 고성능 브랜드 N 모델을 대거 선보인다. 현대차는 오는 26일 열리는 광주 모터쇼를 통해 첫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N'을 공개한다. 아이오닉 5N은 현대차의 기술력을 집대성한 고성능 전기차 모델로 최고출력 650마력이며, 제로백(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3.4초에 불과하다. 현대차는 또 지난 8월 청두 오토쇼에서 선보인 '더 뉴 엘란트라 N'(아반떼 N)을 광주모터쇼를 통해 공개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

기아는 전기차로 승부수를 띄운다. 기아는 중국 시장 전략모델 EV5를 지난 17일부터 판매에 돌입했다. EV5는 EV6, EV9에 이은 기아의 세 번째 전용 전기차 모델로 중국 시장을 우선적으로 겨냥한다. 기아는 중국 연청공장에서 EV5를 생산한다. 현대차그룹 전기차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최초의 전륜 기반 전용 EV이기도 하다. 또 기아는 EV5를 시작으로 EV4, EV3 등을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기아 EV4 콘셉트(왼쪽부터), EV5, EV3 콘셉트.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전국 소비 2.7% 감소... 14년만에 최대폭

통계청 3분기 지역경제동향  
여행객 감소, 날씨 변화 등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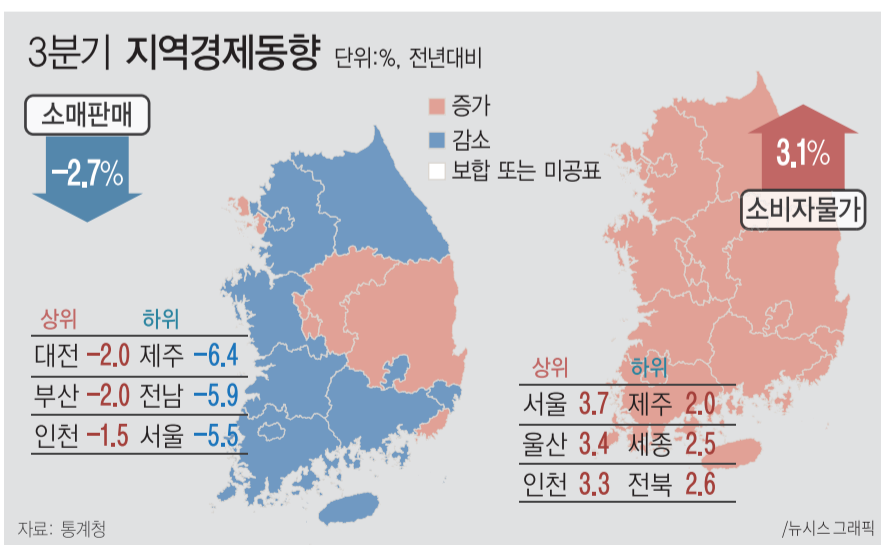
지난 3분기 전국 소매판매(소비)가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면세점 등의 판매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소비 추이를 나타내는 소매판매가 국내 17개 주요 시·도 중 11곳에서 줄어 1년 전에 비해 2.7% 감소했다. 이는 2009년 1분기(-4.5%)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제주(-6.4%)가 가장 크게 줄었고 전남(-5.9%), 서울(-5.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산(2.0%)과 대전(2.0%), 인천(1.5%) 등 6개 시도에서는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여행객이 감소하면서 면세점 화장품 구매가 감소했다"며 "3분기 따뜻한 날씨에 의류 판매가 부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국적으로 1.9% 늘었으나 증가폭은 2021년 1분기(0.8%) 이후 10분기 사이 가장 작았다. 금융·보험, 운수·창고, 부동산 등의 생산이 늘며 인천(6.1%), 서울(5.2%), 광주(4.6%) 등 12개 시도는 증가했다. 반면 정보통신,



예술·스포츠·여가, 숙박·음식점 등의 생산이 줄면서 제주(-1.9%), 전남(-1.4%), 강원(-1.0%)은 감소했다.

수출은 1년 전보다 9.7% 줄며 4분기째 감소했다. 충남(-27.3%), 전남(-25.4%), 세종(-23.2%) 등 11개 시도에서 메모리 반도체, 철강 판, 인쇄회로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줄었다. 광공업 생산도 전년동기 대비 감소(-2.0%)했다. 지난해 4분기를 시작으로 4분기 연속 내림세다. 경남(0.9%), 강원(0.5%) 등 3개 시도는 증가했지만, 부산(-16.3%), 경북(-7.5%), 충북(-7.4%) 등 14개 시도는 생산이 줄었다.

소비자 물가는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과 외식 물가 등이 오르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상승했다. 서울은 3.7%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제주(2.0%)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17개 시도 고용률은 63.2%로 30대, 50대, 60대이상에서 오르면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0.4%포인트(p) 올랐다. 광주(1.4%p), 강원(1.3%p), 경남(1.2%p) 등 12개 시도의 고용률은 상승했지만, 대전(-0.3%p), 제주(-0.3%p), 충남(-0.1%p) 등은 내렸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SK그룹, 기술나눔 앞장... 특히 171건 이전

기술사업화 대전서 상세 소개 예정

SK이노베이션·SK하이닉스·SK텔레콤·SK실트론 등 SK그룹 4개사가 자사 보유 특허 171건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나눠준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SK그룹이 이번에 기술나눔을 통해 공개하는 기술은 반도체, 정보통신, 화학 등 3개 기술분야로 분류되며, 주요 기술은 '공동주택 연료전지 시스템', '버너를 활용한 디젤엔진의 매연 저감장치', '인터페이스 장치를 이용한 반도체 제조 시스템', '패드 보정장치를 포함하는 웨이퍼 연마장치' 등이다.

SK그룹은 이달 28일 기술사업화 대전에서 기술나눔을 통해 공개하는 주요 기술들을 기업들에게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SK그룹은 그간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기술나눔에 가장 먼저 참여했으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44개 기업에 239건의 기술을 무료로 이전했다.

SK그룹으로부터 기술나눔을 받은 플렉스는 "기간 콘텐츠 공유·전송 특허"를 활용해 유아용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개발, 영유아 대상 영상일기 심리

분석 앱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유치원과 학교 등에 제공해 2억7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SK플래닛으로부터 '단말로의 위치 기반 검색 서비스 시스템' 기술을 이전 받은 비지트는 스마트폰 후면 카메라를 이용한 위치서비스 기반 360VR 이미지 제작 모바일 앱을 개발, 전 세계 업계 최초로 실시간 실내외 로드뷰 연동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현재 티맵의 위치서비스 기반 모바일 앱 지도 추가 사용화를 진행 중이며, 구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 동남아시아 지역 서비스 확장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를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평화지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내년 1월5일까지 국가기술은행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으로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이민우 산업기술평화정책관은 "SK그룹이 공개한 다양한 산업분야의 우수한 기술들은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 기술나눔은 기존 참여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등까지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경기침체 장기화에 금값 다시 상승세... 내년 최고점 전망

〈온스당 2200달러〉

실질금리 하락시 美 경기침체 발생  
“내년초 온스당 2200달러 돌파 가능”  
韓 지난달 1g 당 8만7078원 기록  
금 시장 거래시작 이래 최고가 경신



금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내년 최고치를 달성할 것이라 분석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장기화와 내년 미국의 경제가 연착륙이 아닌 경기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 분석이 나오면서 금값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시장에서 금값이 올해보다 내년 최고점을 경신할 것이라 분석이 나오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온스당 1987.30달러까지 상승했다.

금값은 지난 5월 온스당 2085.4달러로 역사적 고점을 경신한 뒤, 미국 고금리 여파로 지난 6월 1823.5달러까지 하락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온스당 2000달러 돌파 후 지난 8일 1957달러

까지 하락했지만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국내 금시장에서도 금의 인기는 여전하다.

지난달 31일 KRX 금시장에서는 1kg 짜리 금 현물의 1g 당 가격은 8만7078원을 기록했다. 이는 KRX 금시장이 거

래를 시작한 이래(2014년 3월24일) 최고가다. 종전 금 최고가는 지난 5월 11일 기록한 8만6992원이다.

이후 매도압력으로 지난 17일 기준 8만3000원까지 하락했지만 금 인기는 여전히 높다,

하락세를 타던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장기화 때문이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전쟁 같은 세계불안감이 높아질 때 가격이 치솟는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직후인 지난달 10일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해당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6.9% 상승했다. 15거래일중 3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금값 상승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금값 전망에 대해 내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미국의 경기침체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2%로 전월 3.7%보다 크게 둔화됐다. 지난 7월(3.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만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연준이 내년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행하게 되면 완만한 물가 하락과 소비 둔화가 진행되면서 명목금리와 실질금리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경기침체가 발생하면서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금 가격이 더 상승한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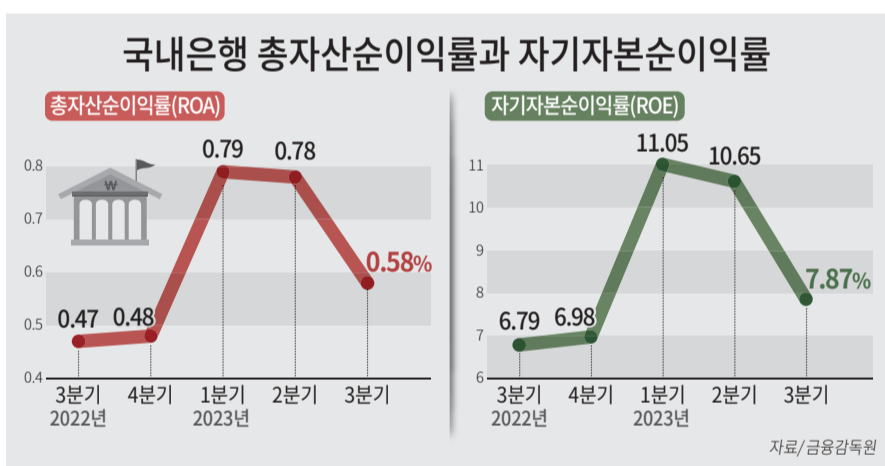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 경기 침체와 기준금리 하락이 금값 상승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내년 온스당 2175달러 보다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 UBS 역시 보고서를 통해 “실질금리가 1%포인트 인하될 때마다 금 가격은 19% 상승한 경향이 있다”며 “내년 1분기 온스당 22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이자장사’ 비판 또 거세지나... 국내 은행, 3분기 이자수익 15兆

올 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전분기 대비 1000억 증가해  
누적 이자이익 44조2000억



국내 은행들의 이자수익이 3분기에만 15조원에 육박하면서 ‘이자장사’ 비판이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4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이 이어진다면 올해 이자이익은 60조원 안팎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작년보다 많아진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14조 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3분기까지 누적 이자이익은 44조 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 6000억원 늘었다.

순이자마진(NIM)은 올해 들어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대출이 늘어난 덕분에

NIM은 1분기 1.68%에서 2분기 1.67%, 3분기 1.63%로 3분기 연속 하락했다. 반면 대출 등 이자수익자산은 평균 기준으로 2분기 3119조8000억원에서 3분기 3157조원으로 37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비이자수익이 부진하면서 전체 순이

익은 성장세가 꺾였다.

3분기 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5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 6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은 1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4000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자이익은 늘었지만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 평가·매매손실 등으로 비이자이익이 감소하고, 지분 손상차손 등으로 영업외손익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3분기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8%,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7.87%로 전분기 대비 각각 0.20%포인트(p), 2.78%p 하락했다.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은 3분기 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9000억원 감소했다. 유가증권관련손익과 외환·파생관련손익이 전분기보다 각각 2000억원, 6000억원 줄었고, 수수료와 신탁관련손익은 전분기와 비슷했다.

3분기 대손비용은 2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6000억원 늘었다. 2분기 중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관련 거액의 충당금이 환입되면서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영업외손익은 -2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순이익은 2022년 이후 금리상승과 대출 증가 등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올해 들어 순이자마진과 ROA·ROE 등 지표가 하락하는 등 수익성이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금리의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향후 은행의 대손비용 부담도 증대될 것”이라며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 현대차·기아, 3차 협력사까지 채용·복지·안전향상 돕는다

정부·전문가 등과 상생협의체 구성  
고용장관 “진정한 동행 만들 것”

국내 자동차 업계의 만행인 현대차·기아가 협력업체와의 상생에 나선다.

현대차와 기아가 20일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글로벌상생협력센터(이하 GPC)에서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정부, 전문가, 협력사 대표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숙련인력 채용, 직원복지 증진, 산업안전 강화 등 협력사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상생협의체’를 통해 기존 1차 협력사에서 중소 협력사인 2, 3차 협력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하는 한편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하고 폭넓은 지원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기아는 11월 말부터 정부, 전문가와 함께 협력사 간담회를 열고 협력업체 현황을 방문하는 등 의제 발굴 및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2024년 1분기까지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상생협력 실천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업계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협약 이행에 상응해 성장, 고용, 복지로 이어지는 자동차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현대차 이동석 대표이사과 기아 최준영 대표이사, 문성준 현대차·기아

협력회 회장을 비롯해 새로 출범한 ‘상생협의체’의 좌장을 맡은 자동차융합기술원 이항구 원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는 현대차·기아와 협력사 간 상생모델이 업계 전반을 넘어 기업, 지역, 업종 단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오늘날 현대차·기아가 글로벌 탑3로 성장하기까지 현대차·기아 임직원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 바탕에는 묵묵히 함께 노력해 준 협력사들이 있었다”며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복지를 기반으로 안전한 일터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진정한 동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 “은행 자회사와 추가논의 통해 방안 마련”

▶▶ 1면 ‘금융권, 자영업자’서 계속

최종방안 마련해 연내 추가 발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탄탄한 건전성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중개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며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금감원장은 또 상생 금융이 ‘관치 금융’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금융회사의 상생 노력은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취약계층 선별적 지원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발전을 위해선 내부통제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금융지주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은 건실한 내부통제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가 뒷받침 되어야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다”며 “금융지주가 지주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요청에 금융지주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지주는 은행 자회사와 추가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세부적인 지원규모 등 최종방안을 마련해 연내 추가 발표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매주 전화로 꼭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식사는 거르지 않는지  
행여나 적적하지는 않나  
혹시라도 이상한 전화를 받을까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봅니다

나를 한결같이 챙겨주는  
고마운 친구가 있습니다

나의



농촌 독거 어르신 말벗서비스

NH농협은행은 2008년부터 농촌지역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안부 전화 서비스로 따뜻한 말벗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친구가  
되어준  
NH농협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NH농협은행이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

# 與野, 예산 증액심사에 '충돌'... 기한 내 통과 어려울 듯

與 '5대 위협 요소' 극복 사업 제시 대폭 삭감한 R&D, 재구조화 약속 野 '5대 미래·생활 예산' 내년 반영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복원할 것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장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및 여야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20일부터 5일간 656조 9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다 마치지 못한 상황이고, 연구개발(R&D)·지역화폐 예산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항목이 많아 예산안 통과 법정기한(12월 2일)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간액 심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날부터 5일간 증액 심사에 착수한다. 예결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주 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이후 17개 상임위 중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총 10곳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은 예결위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앞서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대폭 삭감으로 논란을

빚은 R&D 예산은 장학금 지원을 늘리고, 기초연구와 출연연에 대해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5대 미래예산(R&D, RE 100 대비)을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 저출생 대책 위한 보육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미래세대 예산, 새만금 사업 예산, 5대 생활 예산(지역사랑상품권, 청년 3만원 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프로그램 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각 당에서 민생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고 했지만, 서로 이견이 큰 상황이라 상임위마다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단독 처리하기도 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해 버린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겠다"면서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예산을 복원하겠다고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심성 예산'을 경계하고 있다.

박정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순증 예산의) 상당수는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이 증액 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면서 R&D 예산,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증액을 했다면서 "민주당은 내년도 나라살림을 총선 홍보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며 "국회 최고 의석수를 가진 만큼 민주당은 공당다운 자세로 돌아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정상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與 뉴시티 특위, '행정통합 특별법' 준비... 지방 메가시티도 추진

통합 용이하도록 절차 간소화 김포 편입 유력... 고양시도 방문 요청 尹 정부 '국가균형발전' 철학과 맞물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4차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서울-부산-광주 메가시티 본격 추진을 위해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준비한다. 다른 지역의 메가시티를 본격 추진하기 전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20일 회의를 마친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특별법은 통합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경기도 인근 도시와 서울 편입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 데 구리, 하남 등 건건이 (특별법을 발의)하

게 되면 국민들이 봤을 때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통합법을 만들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지자체법을 상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상향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조금 더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법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법

안이 나오면 그때 공개하겠다"고 했다.

향후 서울에 편입될 경기도 지역에 대한 질문에 "시민이 원하는 지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김포는 유력하다. 김포시민들 찬성이 68%가 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고양시에 대해서는 "방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내일 고양시에 갈 것"이라며 "고양에서도 통합에 대한 열의가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뉴시티 특위는 부산-경남 메가시티, 대전 메가시티 등 수도권 외 지역 메가시티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오는 24일엔 경남도를 방문하고, 조만간 대전이나 광주도 방문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저출산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오는 24일 부산-경남을 통합하는 첫 논의를 시작하고, 조만간 대전시도 방문해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수도권 메가시티와 지방 메가시티를 연이어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며 "결국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가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도 맞물려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티 모델로는 "일본의 도교와 오사카, 나고야가 메가시티화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서 "뉴욕, 파리, 베이징 이런 도시들이 메가시티로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조 위원장은 민주당이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주장하는 데 대해 "일부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당 차원이 아니다. 우리는 당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무게감이 다르다"며 "우리가 하는 메가시티는 상향식인데 울산이 상당히 소극적이다. 부산-경남 통합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가 '메가시티 정책이 총선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 비판한 데 대해서는 "경제관료 출신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경기도 같은 도시는 인구절벽 시대에 분할하기보다 통합시키는 것이 훨씬 더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총선 이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대선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우리는 야당처럼 공약해 놓고 안 지키는 거짓말 정당이 아닌, 국민과의 약속, 공약을 실천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 野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 "명백한 잘못, 국민·당원께 사과"

프로젝트 행사 연기... 원점 재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치러지는 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개된 현수막이 청년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기획 의도가 어땠더라도 국민과 당원이 보시기에 불편했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공식 사과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20일 현수막 논란 관련 브리핑을 열고 "당의 불찰이고, 사무총장으로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번에 논란이 된 현수막은 민주당의 갤럭시 프로젝트를 사전 홍보하기 위한 티저(맛보기) 광고였

다"며 "갤럭시 프로젝트는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국민성을 담아내기 위해 준비한 프로젝트 캠페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티저 광고는 외부전문가의 과격적인 홍보 콘셉트를 담은 안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당에서 세심히 살피지 못하고 실행 과정이 진행됐다"며 "또 론칭을 앞두고 주요 내용 비공개 등의 이유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과정에서 오해와 논란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조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이에 프로젝트 소개를 위한 오는 23일 행사를 연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더민주 갤

럭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프로젝트는 국민 개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나에게 쓸모 있는 민주당'으로 변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기하학적 무늬와 함께 '11.23 나에게온당',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혼자 살고 싶잖아 혼자 있고 싶잖아?'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 4종이 공개되며 당 안팎에서 청년 비하 등 비판이 쏟아졌다.

이와 함께 지도부에서 '캠페인 준비를 하는 홍보사 같은 업체에서 했던 것'이라고 해명하며 '꼬리 자르기' 논란도 일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온라인·우편 접수 운영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함께 펼칠 인재 '국민 추천'으로 영입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20일부터 내년 1월까지 당 홈페이지에 특별 페이지를 개설해 국민들로부터 직접 국민 인재를 추천받겠다고 밝혔다.

국민인재 추천은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우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로 운영되며, 타인추천 및 본인추천 둘 다 가능하다.

인재영입위는 "활동기간 동안 국민 추천을 받은 인재들을 발굴, 영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꼼꼼하게 검증해 국민께 신뢰받는 정치, 희망 주는 정치로 보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입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영입 인재가 당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후속 관리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인재의 4대 영입원칙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재 ▲민익과 공익을 우선순위로 두고 실천할 수 있는 인재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에 앞장서는 인재 ▲재기 능력으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불굴의 의지로 극복한 인재다.

/박정익 기자

# 與, 내년 1월까지 '국민 인재' 추천 받아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gs.hycu.ac.kr

No.1 Cyber Education  
NICE HYCU



# 온라인으로 듣는 한양의 정규 석사 과정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No. 1 Cyber Education  
명문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2024년 1학기 석사과정 모집  
2023.10.23 - 2023.12.07

\*입학관련 문의: 02-2290-0700

## 모집학과

미래융합공학대학원 기계IT융합공학 / 도시건축공학

경영대학원 마케팅 MBA / Finance&Accounting MBA / IT MBA / 광고미디어 MBA

휴먼서비스대학원 아동가족 / 상담 및 임상심리 / 경찰법무

부동산대학원 부동산 교육정보대학원 교육공학 디자인대학원 디자인

# ‘예보료율 인상’ 우려에... 새마을금고 “소비자 피해 없을 것”

0.18~0.20% 순차적 인상 구상  
배당금·예금금리 인하 우려엔  
“관련 스트레스 최소화 할 것  
관리비 등 줄이면 부담 완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 예보료율 인상안이 포함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예보료율을 높이면 지역 금고의 부담 확대가 불가피해진다. 새마을금고는 예보료율 조정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는 없을 것이라 입장이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최근 예금자보호 강화 대책으로 예보준비금 요율 인상 카드를 빼 들었다. 현재 중앙회가 각 금고에 적용하는 예보료율은 0.15%다. 중앙회는 해당 예보료율을 순차적으로 0.18~0.20%까지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예보준비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절반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예보료율이란 금융회사가 부실을 대비해 적립하는 총당금이다. 현재 예보료율인 0.15% 기준 지역 새마을금고가 예금자보호한도 금액인 5000만원을 수신하면 7만5000원을 중앙회에 지불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예보준비금 요율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각 금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광역시 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 /김정산 기사

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을 대신한다.

예보료율 인상을 시사했지만 수익성 제고 방안은 등장하지 않았다. 지역 새마을금고의 조달부담이 커지는 만큼 배당금, 예금금리 등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공격적인 대출 규모 확대를 단행하기 어려운 만큼 비이자수의 확대 방안이 요구된다.

올해 23년 만에 등장한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 또한 예보료율에 가로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예보료율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예금자보호 한도 금액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예보료율이 높아지는 만큼 대출금리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으로 관측한 것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여력이 있는 중장년층의 이용률이 높은 만큼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배당

금을 위해 가입하는 소비자가 많을 것”이라며 “금융시장 변화에 순차적인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해당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예보료율 인상으로 지역별 금고의 부담이 확대될 수 있지만 관련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예보료율 인상 속도 또한 수익성 제고 방식에 따라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배당금, 수신금리 인하 우려도 일축했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자산 규모를 고려했을 때 관리비 등을 줄여 예보료율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서다. 이어 최대 0.2%의 예보료율 산출 근거로 타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현재 상호금융권의 예보료율은 ▲수협(0.25%) ▲신협(0.20%) ▲농협(0.18%) ▲새마을금고(0.15%) 순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 중앙회 차원에서 공격적인 대출은 관리 감독하면서 완급을 조절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소비자들의 이익을 줄이는 방식은 절대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사 kimsan119@metroseoul.co.kr

KB국민은행

## 퇴직연금적립금 40조 달성 내달 15일까지 이벤트 진행

KB국민은행은 다음달 15일까지 퇴직연금 자산관리 적립금 40조원 달성을 기념해 ‘퇴직연금은 역시, KB!’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상품 지정을 완료하고 ▲개인형IRP·D·C 신규 가입 ▲타 금융회사 연금계좌를 KB국민은행 개인형IRP로 계좌이체 ▲개인형IRP에 추가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총 2700명을 추첨해 신세계 상품권, 요기요 금액권, CU 편의점 금액권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깜짝 퀴즈 이벤트도 진행하며 정답자 중 400명을 추첨해 CU 편의점 금액권을 지급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 KB스타뱅킹 및 전국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자산관리 적립금 40조원 돌파를 기념해 고객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올해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900만원으로 확대된 만큼 KB국민은행에서 절세 혜택도 누리고 이벤트 경품도 받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사 smahn1@

# 질병 치료 넘어 건강관리까지... 보험사 ‘헬스케어’ 총력

삼성화재 ‘애니핏’ 서비스 확장  
“헬스케어로 업종 확대, 미래 준비”  
KB손보 KB헬스케어 자회사 설립  
일반고객에 ‘KB오케어’ 공개 예정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 먹거리로 평가 받고 있어서다. 헬스케어 서비스는 질병 치료를 넘어 질병 예방·관리, 건강관리·증진 서비스 등으로 확장된 개념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보험사 가운데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은 헬스케어 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서비스 고도화에 적극적이다.

삼성화재는 자사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애니핏’ 서비스 확장으로 고객 선점에 나서고 있다. 특히 흥원화 삼성화재 사장의 ‘디지털화’ 선언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홍사장은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헬스케어 서비스가 보험사들의 미래 먹거리로 평가받고 있다. /유토이미지

“2022년은 디지털화 원년이였다면 2023년에는 디지털화를 가속하는 실행의 단계”라며 “영업에서 보상이 이르기까지 업무 프로세스상 가능한 모든 부분을 디지털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사장의 의지에 삼성화재는 지난 2018년 출시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애니핏을 ‘애니핏 2.0’, ‘애니핏플러스’ 등으로 개편하면서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헬스케어를 통

해 업종을 늘리고 특히 젊은층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헬스케어에 관심을 갖고 타 보험사 대비 미리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KB손해보험은 이미 내년 사업계획에 헬스케어 사업 고도화를 포함했다. 헬스케어 서비스와 관련한 콘텐츠부터 플랫폼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기환 KB손해보험 사장은 임기 중 KB헬스케어를 자회사로 설립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B헬스케어는 지난해 하반기 금융회사 최초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 마크를 획득하기도 했다.

특히 KB손해보험은 KB금융그룹 내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B2B(기업 간 거래)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는 건강관리 플랫폼 ‘KB오케어’를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로 일반 고객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KB오케어는 기존 B2B 서비스와 차

별화한 일반 소비자 맞춤형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올해 12월 말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상황”이라며 “기존 B2B로 선보였던 서비스와 조금 다른 차별화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에 나서고 있지만 규제와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이 막혀 시장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보험업계는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의료데이터를 개방하고 관련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보험사가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다”며 “의사나 약사의 고유영역인 부분들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다보니 사업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주형 기사 gh471@



제7기 서포크레딧 대학생 신용홍보단이 온라인을 통해 해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

## 대학생 신용홍보단 온라인 해단식 개최

여신금융협회는 ‘제7기 서포크레딧, 대학생 신용홍보단’ 해단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용홍보단은 전국 대학생 36명으로 구성했다. 지난 8월을 시작으로 신용의 중요성 및 신용관리법, 금융사기 대응방법 등을 콘텐츠로 제작했다. 직접 만든 콘텐츠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했다.

해단식에서는 신용홍보단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홍보단원들이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상영하고 수료증 수여했다. 우수 활동을 한 개인과 팀에게는 시상도 진행했다.

최우수팀이 제작한 콘텐츠는 ‘미연에 방지하는 금융사기 시뮬레이션’이다. 게임을 통해 금융사기 예방법을 알아보는 콘텐츠로 재치 있고 유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태운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신용홍보단원으로서의 경험은 앞으로 인생을 설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주위 사람들의 올바른 신용관리를 돕는 생활 속 조력자로서 역할을 지속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사

# 오티에르, 시그니처 음료·음악 개발 ‘오감 자극’

포스코이앤씨, 커피에 감성·가치 담아

포스코이앤씨가 아파트 하이엔드 브랜드인 ‘오티에르’의 시그니처 향기를 선보인 것에 이어 시그니처 음료와 음악을 개발해 고객들의 오감을 자극했다고 20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단순 기호식품을 넘어 생활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커피에 오티에르만의 고품격 감성과 가치를 담아낸 커피(Flore)와 고객들에

게 달콤한 휴식을 선사하는 티(Moon) 두 종류의 시그니처 음료를 론칭했다.

또한 대중음악과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작곡가이자 연주자인 정재일 음악감독과 함께 오티에르 브랜드 시그니처 음악인 ‘포 오티에르(For Hauterre)’를 공동으로 개발했다.

오티에르 시그니처 커피 ‘플로르(Flore)’는 꽃과 풍요의 여신인 Flore에서 그 이름을 따왔으며, 엔트러사이트와

포스코이앤씨가 공동으로 개발했다. 시그니처 커피에서 느껴지는 농후하고 무게감 있는 꽃 향이 감각을 넘어 감성을 자극하도록 했다.

정재일 감독과 포스코이앤씨가 함께 만든 시그니처 음악 ‘포 오티에르(For Hauterre)’는 새벽부터 밤까지 오티에르에서 보내는 하루라는 서사를 품은 음악이다. 정 감독은 부다페스트 스코어링(Budapest Scoring) 오케스트라 단과 호흡을 맞춰 ‘오티에르’에서만 누



오티에르 시그니처 커피 ‘플로르(Flore)’. /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릴 수 있는 ‘대담한 특권’의 하루를 음악으로 표현했다.

/김대환 기사 kdh@



# 배터리업계, ‘기술·인재’ 자신감… 전기차 합종연횡 이끈다

완성차, 배터리 내재화 본격 추진  
경제적 부담 커… 업종간 협업 전망  
“공장 수율 개선 등 동반성장 기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사업 진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배터리 업계는 여전히 기술 경쟁력 부분에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20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과 토요타 등 글로벌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배터리 내재화를 위한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는 전기차 시장에서 소재를 직접 확보해 판매 단가를 낮추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년간 9조5000억원을 투자해 배터리 성능 향상 및 차세대 배터리 선형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또한 현대차는 남양연구소에 배터리 개발 전문 조직을 구성했다. 배터리 시스템, 셀 설계, 배터리 안전 신뢰성 및 성능 개발, 차세대 배터리 등 선형 개발을 포함하는 기능별 전담 조직을 마련해 전문 인력을 집중 육성 중이다.

토요타도 배터리 개발을 위한 계획을 내놨다. 토요타는 일본의 정유업체 이데미츠코산과 협업해 2028년까지 전

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토요타는 지난 10월 말까지 안정적이고 고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재료를 개발했다고 밝히며 배터리 자체 개발에도 투자를 이어 나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완성차업체들의 배터리 기술 개발이 ‘필연적인 흐름’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배터리 기술 개발을 통해 자사 제품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어 자체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해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터리업계는 다소 여유로운 분위기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들은 “완성차업체에서 배터리 생산 설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라며 “결국에는 배터리업계와 협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례로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공장 수율을 90%로 끌어올리는 데까지 약 2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배터리업계는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바탕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만9000여 건의 특허와 연간 200GWh 규모의 글로벌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원가 경쟁

력 강화에도 매진한다. 원재료는 현지화를 추진하고 원재료 업체와의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원재료를 확보하고 원가 경쟁력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SK온은 글로벌 화학기업 BASF와 협업해 원소재 공급망 강화에 나선다. 또 폐배터리 재활용 등을 포함한 배터리 가치사슬(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배터리업계는 숙련된 인력 양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도 주력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에 배터리 관련 학과를 설립해 입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취업을 보장한다.

SK온은 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과학기술대(KAIST), 한양대, 성균관대 등과 배터리 계약학과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내 인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외에도 배터리업계에서는 공장 운영 경험이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배터리공장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장의 수율을 잡고 빠른 기동 및 안정적 기동에 필요한 노하우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삼성행복대상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

## ‘2023 삼성행복대상’ 시상식 삼성 “행복한 사회 구현 함께”

조한혜정·목인희 교수 등 8인 영예  
11회 걸쳐 88명에 20억 상금 수여

행복한 세상을 만든 사람들이 삼성행복대상과 함께 축하와 격려를 받으며 긍정 에너지를 나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0일 서울 한남동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에서 ‘2023 삼성행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삼성행복대상은 사회적으로 여성 역할을 증진하고,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하거나 시대에 맞는 가족 문화를 만들며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을 찾아 알리고 격려하며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는 목적으로 운영 중이다. 2013년 ‘비추미 여성대상’과 ‘삼성효행상’을 통합 계승했다. 11회에 걸쳐 88명에 20억원 가량 상금을 수여했다.

올해에는 ▲여성선도상 조한혜정(75)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 ▲여성장조상 목인희(60)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가족화목상 박영주(54) 세종예술고 음악 교사, ▲청소년상 김선애(15, 정원여중 3), 최별(17, 인천비즈니스고 3), 육효정(18, 신명고 3), 리안티안눈(20, 경희대 1), 백혜경(21, 배재대 3) 학생 등 총 8명이 수상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이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심사위원 등 관계자는 물론 역대수상자와 수상자 가족들을 초청했다. 서정돈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인사말과 노정혜 심사위원장 심사보고,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축하 등으로 진행했다.

서정돈 이사장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타적인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오늘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신 분들은 자신보다 가족과 사회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신 분들이다”라며 수상자를 축하했다.

여성선도상 수상자인 조한혜정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는 “상호 돌봄의 실천을 통해 경쟁과 적대, 전쟁과 폭력의 시대를 마감해야 한다는 생각을 자주하게 된다. 돌봄은 노동이자 윤리관이며, 감정이자 사유의 원리이며, 남녀 모두에게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이제는 그 선물을 제대로 받아들여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수상자들을 축하하는 의미로 시상식 이후 리움미술관에서 개최중인 전시와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아동·청소년 미술치료 작품 전시회 관람 행사도 마련했다.

/김재윤 기자 juk@

## 포스코그룹-르노그룹, 친환경 미래소재 기술개발 맞춘

테크데이 통해 협력방안 논의

포스코그룹이 글로벌 완성차업체 르노그룹과 친환경 미래소재 핵심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포스코그룹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르노 R&D(연구개발)센터에서 ‘포스코그룹 테크데이’를 열고 친환경 미래소재 핵심 기술과 주력 제품을 소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르노그룹과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포스코그룹은 기존 철강 부문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이차전지소재 및 수소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자 이번 테크데이를 개최했다.

르노 테크데이는 2011년 이후 이번



김지용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장(그룹 CTO·왼쪽), 세드릭 콩베모렐 르노 기술총괄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프랑스 르노 R&D센터에서 테크데이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 두 번째다. 이날 포스코그룹은 르노 R&D센터에 자동차 차체 및 새시용 강판, 친환경차 구동모터용 전기강판 등 주력 철강제품과 리튬, 니켈, 양·음극

재 등 이차전지소재 및 수소 사업 관련 기술을 전시했다.

이와 함께 르노그룹과 철강, 이차전지소재, 수소차 등 다방면에 걸친 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철강 부문에서 탄소저감 철강제품인 ‘그리닛스틸’과 차세대 전기차용 경량 플랫폼, 멀티머티리얼 등에 대해 소개하고, 기가스틸 공동 기술개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김지용 미래기술연구원장은 “르노그룹과의 파트너십을 이차전지소재, 수소 등 친환경 미래소재 전(全) 분야로 확대해 탄소중립과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대한항공 신입 객실승무원 채용

대한항공이 기내 안전과 서비스 업무를 책임질 신입 객실승무원 채용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입 객실승무원 지원자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총 150여 명이다. 이번 채용을 통해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여객사업 회복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형 절차는 ▲서류 심사 ▲1차 면접 ▲2차 면접 및 영어구술 시험 ▲3차 면접 ▲건강검진 및 체력·수영시험 순이다.

/양성운 기자

## 신들러엘리베이터, 전력절감 솔루션 각광

최대 50% 전력 소비 절감

유럽 승강기 브랜드 신들러엘리베이터가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목받고 있다.

신들러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군관리 및 행선층 예약 시스템, 신들러 포트(Schindler PORT) 등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최대 50%의 전력 소비를 절감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일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돼 기업들은 이에 대응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신들러엘리베이터는 친환경 벨트시스템, 군관리 시스템, 전력회생형 구동기를 비롯한 에너지 효율 A등급의 장비 등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공했다.

특히 신들러엘리베이터의 군관리 및 행선층 예약 시스템, 신들러 포트의 에너지 및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업계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군관리 시스템은 엘리베이터가 여러 대 설치된 건물에서 동일층으로 가는 승객들을 동일한 카로 안내해 엘리베이터 작동 및 전기 사용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차현정 기자

## LG전자, ‘슈케어·슈케이스’ 부스 운영

컴플렉스콘 2023  
스타일러 신발관리 솔루션 소개

LG전자가 차세대 신발관리 솔루션 ‘LG 스타일러 오브제컬렉션 슈케어·슈케이스’를 통한 차별화된 고객 경험으로 스니커즈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20일 LG전자에 따르면 현지 시각 18일~19일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2023’에서 슈케어와 슈케이스를 진열한 전시 부스를 꾸렸다. 올해 컴플렉스콘 참가자들은 LG전자 부스를 방문해 신발을 최적의 습도로 보관하고 예술 작품처럼 감상하는 슈케어·슈케이스의 차별화된 가치와 편리함을 체험했다.

스타일러 슈케어·슈케이스는 IFA 2022에서 처음 공개된 후 명품 운동화나 한정판 신발 등을 더욱 돋보이게 보



LG컴플렉스콘 LG전자 부스

/LG전자

관하고 즐기는 동시에 최적의 방법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슈케어는 ‘LG 스타일러’ 특허 기술이 탑재돼 신발 관리에 최적화된 기술을 제공한다.

/차현정 기자

# 떠난 고객 잡아라... 배달앱 3사, 상시·추가할인에 무한경쟁

10월 이용자 수 2949만 6304명  
직전월비 -0.6%, 전년비 -2.5%  
이탈·결제금액 축소에 성장 둔화  
현금성 프로모션에 출혈경쟁 우려

코로나19 3년간 유례없는 대변영을 누린 배달 앱(APP)의 사정이 녹록치 않다. 팬데믹 종식 후 역기저 현상을 각오했으나 고물가 장기화와 전 세계적 불황 등 업계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외부요인이 닥치며 예상치를 훨씬 웃돈다는 것이다.

20일 배달 앱 3사(배민·요기요·쿠팡이츠)의 소비자 이탈과 결제대금 축소가 빨라지는 가운데 현금성 프로모션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배달앱 3사의 10월 월간활성이용자 수(MAU)가 직전월 대비 0.6%가 준 2949만 6304명을 기록했다.

배달 앱 3사는 2020년 3월 정부가 처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후 전면 해제를 한 지난해 4월까지 약 4년 간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의 배달 앱 조사에 따르면 2019년 3월 당시 5000억 원 수준이었던 배달 앱내 결제 금액은 2020년 3월 1조 200억 원, 2021년 3월 1조 7800억 원, 2022년 3월 2조 3100억 원까지 늘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만 1년을 앞둔 올 3월 결제대금은 1조 8700억 원으로 19.04% 하락했다.

배달 앱의 급격한 이용자 이탈과 결제 금액 축소는 엔데믹과 동시에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엔데믹 후 역기저 효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다소 이용자가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은 했으나 시장이 축소되는 지경에 이를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배민 라이더들의 오토바이.

/뉴스시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원유가 급등 등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배달비도 급격히 상승해 지난해 2월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낸 자료를 참고하면 평균 배달비는 5937원에 이르렀다. 3km 미만 거리에서 최저가는 3000원, 최고가는 6500원이었다.

배달비 급상승이 이용자 이탈에 큰 원인으로 지목되자 각 배달 앱은 배달비 할인 프로모션으로 고객 Lock-In에 나섰다. 상시 할인은 물론 다양한 결제업체와 협약을 맺고 추가 할인을 이어갔다. 문제는 프로모션 경쟁이 곧 치킨게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가감시센터가 9월 낸 최신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 내 배달비는 2개월 전인 7월 대비 평균 16.9% 올랐는데, 역으로 7월 평균 배달비는 5월 대비 -6.5%를 기록했다. 이용자 수 또한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어 평균 배달비가 하락한 7월 배달 앱 전체 사용자(MAU)는 3040만 명으로 전년 대비 61만 명 증가했다. 그러나 배달비가 다시 오른 9월 2967만 8636명을 기록한 후 10월 2949만 6304명으로 떨어졌다. 더운 날씨로 외출을 기피한 것 또한 요인이지만 프로모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이용자 수에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배달앱 3사는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지난해 영업손실 757억 원을 기록했다, 요기요는 1116억 원, 쿠팡이츠는 지난해 35억 원의 적자를 냈다. 배달 앱 3사가 모두 이용자 이탈에 따른 현금성 프로모션이 더욱 적자를 부르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쿠팡이츠 또한 지난 3분기 쿠팡 실적발표 당시 김범석 창업자가 "이츠를 사용하는 와우 회원이 90% 늘었고, 혜택이 주어진 지역의 75% 이상에서 거래량이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으나 쿠팡 유료멤버십 혜택 확대에 따른 결과로 사실상 현금성 프로모션에 가깝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15일 진행한 '우아한테크콘퍼런스'에서 라이브쇼핑 서비스를 접고 인공지능(AI)와 쿼커머스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전자랜드와 애플 프리즈비, 삼성스토어 등을 배민 스토어에 입점한 데 이어 이달 초 홈플러스도 입점했다. 그러나 쿠팡이 쿼커머스 서비스 지역을 송파·강동 일부 지역으로 축소했고, 쿼커머스 대표 기업 중 하나인 독일의 고릴라스(Gorillas) 등 해외 쿼커머스들이 수요감소로 실적이 둔화된 끝에 사업 철수를 이어가는 만큼 향후 전망은 알 수 없는 상태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m

## 트렌디한 디자인·색감에 아웃도어 최적화

쉐보레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  
부분변경으로 프리미엄 옵션 탑재  
1·2열까지 이어진 파노라마 선루프

한국지엠 쉐보레가 최근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를 거쳐 상품성을 강화한 트레일블레이저로 MZ세대 중심으로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

쉐보레가 새롭게 출시한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는 다양한 색상을 적용해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프리미엄 옵션과 할인 프로모션까지 진행하며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다.

20일 쉐보레에 따르면 11월 중 '쉐비빅페스타' 프로모션을 통해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를 구매할 경우 12개월 무이자 할부(선수율 10%) 또는 5.0% 이율로 최대 36개월, 5.5% 이율로 최대 72개월까지 할부로 구매할 수 있다. 구매 고객 중 선착순 300명에게는 블랙박스, 캠핑용 자동충전 에어컨 등 사은품도 준다. 우선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부분은 가을 감성을 품은 컬러다.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는 스



쉐보레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

노우 화이트 펄, 스틸링 그레이, 모던 블랙 등 무채색 컬러를 기본으로, 마치 가을 산을 수놓은 단풍과 같은 형형색색의 유채색 컬러를 대거 적용했다. 새롭게 추가된 피스타치오 카키와 어반 옐로우는 물론, 밀라노 레드, 새비지 블루 등 화려한 유채색의 컬러들은 경쟁모델 대비 종류는 물론, 존재감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전기차 모델인 볼트 EV는 친환경의 상징인 푸른색 계열인 스카임인트 블루를, 스포츠카인 카마로 SS엔 '밤블비' 컬러로 유명한 허니 옐로우 컬러를 적용해 컬러 마케팅에 박차를 가했으며, 2020년 트레일블레이저와 함께 등장한 이미지 블루 컬러를

소비자들의 뇌리에 각인시키며 컬러 마케팅을 성공으로 이끌어오고 있다.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는 경쟁 SUV 차종에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다양한 프리미엄급 옵션도 탑재했다. 떨어지는 단풍과 다가오는 겨울 따뜻한 차 안에서 눈을 즐길 수 있는 옵션도 마련됐다. 바로 소형 SUV에는 없는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으로 1월부터 2월까지 이어지는 파노라마 선루프는 보통 중형 및 대형 SUV에 적용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제주항공, 노선 다변화로 수송실적 회복

2019년 10월 대비 103% 회복률

제주항공이 코로나19 후유증을 딛고 정상화 궤도에 들어섰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0월 1일 입국 후 하루 이내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실질적인 방역 완화 조치가 시행된 지 만 1년만에 2019년 10월 대비 103%의 회복률을 보이며 코로나19 이전 수송 실적을 회복했다"고 20일 밝혔다.

방역조치 완화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기준 제주항공의 국제선 운항편은 1312편, 공급석은 24만 5934석, 수송객은 20만 4732명에 불과했으나 1년만인 올해 10월 기준 제주항공의 국제선 운항편은 4196편, 공급석은 79만 1304석, 수송객은 68만 1187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19.8%, 221.8%, 2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0월 대비 국제선 운항편은 98.5%, 공급석 98.4%, 수송객 수는 10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제주항공 측은 "이처럼 제주항공이 코로나19 후유증을 털어내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효율적인 기재 운영과 중단거리 노선 위주의 선제적



제주항공 항공기.

/제주항공

이고 탄력적인 노선 운영 전략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제주항공은 일본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전 운항했던 중단거리 노선의 빠른 회복에 집중했다. 지난해 10월 김포-오사카, 인천-삿포로 노선 재운항을 시작으로 11월 인천-나고야, 오사카와 노선에 재운항을 시작하며 빠르게 일본 노선의 공급을 늘렸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적 항공사의 일본 노선 수송객 수 1397만 5476명 중 20.8%인 290만 9401명을 수송하며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괌·사이판 노선에서도 38.1%의 점유율을, 필리핀 노선에서는 29%의 점유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 SK지오센트릭, 순환경제 협력 앞장

대한민국 친환경 패키징 포럼 참가

SK지오센트릭이 순환경제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SK지오센트릭은 20일부터 이틀간 서울 광진구 위커희호텔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친환경 패키징 포럼'에 참가, 민·관·학 관계자들과 함께 순환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패키징(포장재)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친환경 패키징 포럼은 지난 2019년 처음 개최됐다. 포장재 등 폐플라스틱의 부정적 환경 효과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으로 발전해 왔다.

올해 포럼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새로운 자원순환 활동 전개, 순환

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패키징 등을 주제로 열린다. 대한민국 친환경 패키징 포럼 위원회가 주최했으며 SK지오센트릭 등이 주관한다.

SK지오센트릭은 포럼 첫날 '포스트 플라스틱(Post plastic) 시대의 준비' 세션을 주관한다. 현재 구축 중인 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 '울산ARC(Advanced Recycling Cluster)'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폐플라스틱 이력 관리 시스템을 소개한다.

다수의 국내의 기업들도 함께 발표에 나선다. 글로벌 포장재 기업 암코(A mcor)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패키징 사례 및 전략'을 소개한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친환경 배달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재활용 소재 개발 동향'을 발표한다.

/허정운 기자

## 헬로모바일, 월 2만원 15GB 요금제 출시

OTT 최대 6개월 무료 이용권 제공

헬로모바일이 저렴한 가격으로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LG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은 20일 온라인 직영몰을 통해 'DATA걱정없는 유심15GB'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월 2만 900원 요금으로 15GB 데이터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데이

터 기본제공량을 소진해도 1Mbps 속도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헬로모바일은 신규 가입시 OTT 1종을 선택해 3개월권도 제공한다. 리뷰를 작성하면 3개월권을 추가 제공한다.

헬로모바일은 이번 요금제를 통해 소비자의 요금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재용 기자 juk@



▶ 메론빵 에어팟 맥스 케이스

▶ 메론빵 디저트 고블릿



▶ 소프트 플러피 키링 [메론빵 거북이]



▶ 메론빵 거북이 인센스 스틱 홀더



▶ 메론빵 거북이 미니 트레이



▶ 메론빵 거북이 글라스



▶ 메론빵 거북이 스트링백팩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 후카후카스튜디오 ]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 공식 홈페이지 ddada.kr

▶ 후카후카스튜디오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공급망 수혜 신흥국 조망… 차별화 ETF 상품 선보일 것”

## 한투운용 ‘인도&VIM 세미나’

‘넥스트 차이나’ 대안국가 주목  
베트남 등 신규 펀드 출시 계획  
“맞춤형 전략으로 경쟁력 제고”

“당사는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고자 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유망한 투자수단을 찾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이 20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인도&VIM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수혜 가능성이 높은 신흥국 시장을 조망하고, 맞춤 투자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한투운용은 이날 세미나에서 ‘넥스트 차이나’의 후보로 인도,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주목했다. 근거로는 높은 생산 가능 인구 비중, 저렴한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이 20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인도&VIM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인건비 및 높은 생산성 등을 들었다. 이상원 한투운용 상품전략본부장(상무)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이후 시작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베트남,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대안 국가가 주목받게 됐다”며 “중국향 외국 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지난해 급감했지만, 동일 기간 4개국 FDI 규모는 중국의 약 71%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

으로, 이미 시작된 대안국가로의 FDI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트남은 풍부하고 저렴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멕시코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최대 수혜국으로 꼽히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자원부국에서 전기가 허브로 변화 중에 있다는 부연이다. 특히 인도는 제2의 중국으로 부상하

며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민수 CMK투자자문 대표는 “모디 총리의 ‘포괄적금융지원계획’ 시행 이후 디지털 사회로 전환이 이뤄지며 글로벌 기업과 기관 투자자가 인도를 주목하고 있다”며 “인건비 경쟁력과 정부 지원 아래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인프라, 내구재 및 임의소비재 등 제조업 분야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등은 신흥국 인도 증시에 투자하는 관련 ETF 상품을 선두로 출시해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각사별로 다른 운용 방식에 따라 수익률, 과세 체계 등이 차이 나게 된다. 이에 따라 한투운용도 신흥국 투자전략을 공개했다.

현재 한투운용은 인도 대표그룹주에 투자하는 ▲한국투자인도5대대표그룹펀드 ▲ACE 베트남VN30(합성) ETF ▲한국투자베트남그로스펀드 등 베트남 펀드, 멕시코와 인도네시아에 각각 투자하는 ▲ACE 멕시코MSCI(합성) ETF ▲ACE 인도네시아MSCI(합성) ETF를 보유하고 있다.

오혜윤 한국투자신탁운용 해외투자 운용부장은 “인도 시장은 대표그룹들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진행하는 ‘승자독식’ 구조”라며 “당사의 다양한 상품 중 특히 한국투자인도5대대표그룹펀드는 인도를 대표하는 5대그룹에 집중투자한다는 점에서 타사와 차별화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대상은 자동차와 철강으로 유명한타타그룹, 정유화학기업인 릴라이언스그룹, 인도 대표 IT 서비스기업 인포시스, 금융그룹 HDFC, 소비재기업 바자즈 등이다.

이외에도 한투운용은 베트남·인도·멕시코 등 신흥국 3개국에 분산투자하는 새로운 펀드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 오 부장은 “한 국가에 투자하는 것보다 3개국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더 높은 절대 수익률과 더 낮은 변동성을 나타냈다”며 “각 국가별 스타일과 사이즈별로 가장 우수한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를 담은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인벤티지랩, 주가 급등… 기술수출 기대감 주효

장기지속형 주사제 사업화 공유  
장중 1만4000원대까지 치솟아

인벤티지랩이 비만치료제 등 주요 파이프라인의 기술수출 기대감으로 급등했다. 20일 코스닥 시장에서 인벤티지랩은 전일보다 13.20% 오른 1만40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글로벌 빅파마를 비롯한 국내 주요 제약사들과 기술수출 계약 체결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기대감이 모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벤티지랩은 최근 주주들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사업화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사업화 논의가 가장 빠른 파이프라인

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비만·당뇨 치료제다. 인벤티지랩은 현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동일한 성분의 비만치료제 ‘TVL3021’을 1개월 지속형 주사제로 개발하고 있다. 비임상에서 1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치료 효과를 확인했으며 특히 기존 장기지속형 주사제가 갖는 문제점인 ‘과다 방출’ 없이 안정적인 약물 방출을 보여 주목을 받았다.

인벤티지랩 관계자는 “현재 비만·당뇨 치료제의 경우 국내 탐티어 제약사와의 라이선싱 계약을 진행중”이라며 “성공적으로 실사를 완료하고 구속력 있는 텀시(Binding Term-sheet)에 합의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계약 체결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했다.

글로벌 사업화 역시 가시화 된다. 회사측은 글로벌 동물제약사와는 장기지속형 주사제 생산 플랫폼 이전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회사측 관계자는 “유럽 내 EU-GMP에 생산 플랫폼 기술을 이전하는 프로젝트로, 당사의 양산 장비 및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공장의 실사를 마친 상황”이라며 “전립선암·성조숙증 치료 장기지속형 주사제들은 실사 중에 있으며, 자가면역질환 신약(류마티스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은 글로벌 바이오테크와 구체적인 라이선싱 계약을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 제약사라도 글로벌 사업화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 한국투자증권 ELS·ELB 22종 출시

한국투자증권은 주가연계증권(ELS)과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22종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TRUE ELS 16641회’는 네이버(N AVER)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상승부스터형 상품이다. 만기는 1년이며, 상환여부는 4개월 차에 1회 판단해 기초자산이 기준가격의 90% 이상이면 5.3%의 수익을 지급하고 조기상환된다.

테슬라(Tesla)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TRUE ELB 1940회’는 원금이 보장되는 상승낙아웃(Knock-out)형 상품이다. 만기는 1년이며,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격의 100% 초과 147% 이하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최대 47%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그외 상품 19종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신한투자증권 “‘신한브리즈’ 만나보세요”

증권사 최초 향기마케팅 실시

신한투자증권은 증권사 최초로 신한투자증권 시그니처 향인 ‘신한브리즈(사진)’를 통해 향기마케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신한브리즈’는 프리미엄 프래그런스 브랜드인 테일러렌츠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된 신한투자증권만의 시그니처 향이다. 은은한 나무 향과 풀꽃향을 담아 기분 좋게 불어오는 산들바람처럼 언제나 신한투자증권 고객 곁에 머물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8월부터 지점에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편안함을 선사하고,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지점에 ‘신한브리즈’ 디퓨저와 룸스프레이를 배포했다.



신한투자증권은 11월부터 고객용 신한브리즈 멀티퍼퓸을 출시해 지점에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고객용으로 제작된 신한브리즈 멀티퍼퓸은 옷, 차량용 시트, 공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 탈취제로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비건 레시피로 제작됐다.

김수영 신한투자증권 브랜드홍보본부장은 “후각은 인간의 오감 중 기억과 감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감각 기관”이라며 “신한브리즈 향기를 통해 고객들 마음에 신한투자증권 브랜드를 오래 남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한국거래소는 20일 서울사옥에서 ‘제2회 KRX 주식 투자 알고리즘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경진대회는 금융 관련 아이디어를 공모했던 작년과 달리 주식 투자 ‘알고리즘’ 대회로 개최됐으며, 시상 규모도 2배로 확대돼 참여도가 높았다. 최우수상에는 머신러닝 시계열 예측 알고리즘인 ‘SCINet’을 활용해 주가상승 종목을 예측한 팀 ‘Error’가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매수·도 조건을 활용한 알고리즘을 개발한 팀 ‘데이con’과 지수를 활용한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개발한 팀 ‘연봉올려주세요’가 각각 수상했다. /한국거래소

## 거래소, 온라인 ‘회계지원 플랫폼’ 오픈

검색엔진 탑재… 모바일 버전 제공

한국거래소는 중소기업의 회계업무 지원을 위한 온라인 ‘회계지원 플랫폼’을 20일 정식 오픈했다.

회계지원 플랫폼은 다양한 회계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회계 담당자들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회계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회계유관기관의 각종 회계정보를 취합해 보기 쉽게 분류·계재했고, 검색엔진을 탑재해 사용자 검색이 용이한 것이 장점이다. 또한, 모바일 버전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스마트폰으로도 관련 자료 등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플랫폼은 유관기관 보도자료, 기준서 및 질의회신, 회계감사 관련 자료, 교육자료, 온라인 상담·신청 등으로 구성됐다. 사용자가 최신 동향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회계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합해 제공한다.

기준서 및 질의회신의 경우, 회계기준서(K-IFRS, K-GAAP), 내부회계관리

제도 규정, 감사기준서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기준서 해석·적용 관련 금감원 및 기준원의 질의회신 자료 2025개는 별도 수록돼 있다. 더불어 정책자료(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등) 및 외부감사인과 계약체결 시 필요 자료(표준감사시간, 상장법인 감사보수 현황 등)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무회계실무, 내부회계관리제도, XBRL 등 특히 중소기업 회계담당자에게 필요한 온라인 교육자료도 제공한다. 상담 및 신청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는 감사대응, 회계처리, 내부회계 등과 관련해 기업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신청 창구를 마련했다.

거래소는 “외감규정 개정에 맞춰 자율분쟁조정 신청 접수, 공정가치 평가 지원 등 기능을 지속 추가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회계 담당자들의 회계정보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이 증대되고, 회계지원센터와 상호 의사소통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신하은 기자

# 해운업 불황에도 HMM 눈독... 하림·동원, 물류 전쟁 승자는

해운업 불황론에 매각 '이상기류' 하림·동원 HMM 인수전 의지 표명 하림, 컨테이너선 시너지에 박차 동원, 수산·식품 등 물류확장 풀이

'해운업 불황론'이 고개를 들면서 HMM 화물 사업부 매각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입찰 참여를 희망했던 기업들의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유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하림과 동원 두 기업이 입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는 오는 23일 LX·동원·하림그룹 등을 대상으로 HMM 본입찰을 진행해 인수·합병(M&A) 우선 협상대상자를 추려낼 계획이다. 인수 후보자로 나선 이 기업들은 지난 9월부터 이달 초까지 HMM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HMM 인수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합쳐 5조~7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력 인수 후보로는 예비입찰에 나섰던 LX, 하림 그리고 동원그



김홍국 하림 회장. /손진영 기자

룹이 거론된다.

LX는 현금성 자산으로 2조5000억원 규모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후보들 가운데 가장 재무 상황이 좋은 곳으로 꼽히지만, 최근 해운업 불황 등을 근거로 본입찰을 포기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실제로 HMM의 올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과 비교했을 때 각각 58%, 97%씩 하락했다.

동원그룹은 스타키스트·동원로엑스·동원홈푸드 등 3개 비상장 계열사에 대한 기업 공개를 추진해 HMM 인수 자금을 모은다는 계획이고, 하림그룹은 보유 중인 각종 부동산과 주식을 매각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동원그룹

해 인수 대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림의 경우 이미 그룹소속 해운사인 팬오션이 최근 한진칼 주식 390만3973주를 1628억원에 처분하며 현금 확보 하기도 했다.

이처럼 동원과 하림은 각자 사정에 맞춰 HMM 인수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동원그룹의 경우 기존 수산부문이 안정된 수익원이기는 하지만, 그룹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 다각화에 나서야 하는 차원에서 HMM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번 HMM 인수전 참여도 물류 사업 확장 차원으로 풀이된

다. 수산·식품·포장재·물류 부문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다.

동원그룹이 물류사업을 시작한 것은 1997년이다. 당시 동원산업은 국내 최초 한·일 5개사 합작(동원산업·애경산업·삼양사·대한통운·미츠비시) 3PL 전문물류기업인 레스코에 참여하며 물류 사업에 진출했다. 지난 2016년 동원로엑스(전 동부익스프레스)를 인수하면서 물류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동원그룹은 컨테이너 터미널 항만 사업을 영위하는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의 지분도 100%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 HMM까지 인수하면 해상 물류 사업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다.

하림그룹은 지난 2015년 국내 최대 벌크선 운송사 팬오션을 인수하고 물류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팬오션의 경우 하림그룹에 합류한 이후 빠르게 실적을 개선했다. 하림에 인수된 지 5개월 만인 2015년 7월 법정관리를 졸업했고 2017년에는 매출액 2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팬오션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6조4204억원으로 전년

대비 39.1% 늘었고 영업이익은 7896억원으로 전년 대비 37.8% 증가했다.

현재 팬오션은 컨테이너선 사업보다 벌크선 사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컨테이너선사인 HMM을 인수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게다가 기업 규모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HMM의 공정자산은 25조7890억원이다. 단순 합산으로 계산하면 하림그룹은 HMM 인수시 공정자산이 42조8790억원으로 늘어 재계 순위가 27위에서 12위로 상승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HMM의 유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HMM 인수금액이 최소 5조원에서 최대 7조원까지 예상되는데, 두 기업 모두 매각가를 감당하기 벅거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HMM 노조 측은 해상운임은 지난해 대비 80% 가까이 급락한 가운데, 이번 입찰이 유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HMM이 국적선사로서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게 현금성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신중히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지스타서 韓 게임사 뿔뿔... 현장이벤트 등 색다름에 '대성황'

웹젠, 신작 3종 서브컬처 장르에 주목 넥슨, FC 모바일 유저위한 이벤트 엔씨, 개발 책임자가 시연 빌드 설명 게임대상선 네오위즈 P의 거짓 우승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023'에는 오랜만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며 수상자들을 축하한 데 이어 개막일에는 이례적으로 7년 만에 지스타에 다시 등장한 웹젠이 아예 B2C 부스에 선보인 3종의 신작 모두 서브컬처 장르로만 구성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웹젠은 자회사 웹젠노바가 개발 중인 신작 '테르비스'를 비롯해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와 '라그나돌' 등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2023 전경. /최빛나 기자

으로, 이 가운데 2D 애니메이션 기반의 수집형 RPG로 개발 중인 '테르비스'는 전략적 요소가 살아 있는 전투와 다양한 협동 및 경쟁 콘텐츠를 처음으로 선보여 가장 주목을 받았다.

넥슨은 올해 B2C 부스에 나서진 않았지만, 대신 'FC 온라인'과 'FC 모바일' 유저를 위한 대규모 축제인 'FC 프로페스티벌'을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지스타 기간 내내 실시하며 또 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일반 방문객이 체험 가능한 BTC 콘텐츠가 벡스코 전시장(제1전시장, 제2전시장 1층)뿐만 아니라 야외를 비롯해

여 컨벤션홀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확대됐다.

1전시장에서는 다이아몬드(메인) 스폰서로 참여한 위메이드가 '나이트 크로우'에 이은 또 하나의 대형 MMORPG인 '레전드 오브 이미지'와 신작 야구 게임 '판타스틱4 베이스볼'을 최초로 선보였다. 플래티넘 스폰서로 참여한 구글코리아는 크로스 플랫폼을 주요 골자로 테크니스트의 '쿠기런: 모험의 탑', 플린트의 '별이 되어라' 등을 소개하며 방문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엔씨소프트는 'LLL', '배틀크러쉬', '프로젝트 BSS' 등 총 3개 신작의 시연부스를 마련하고, 현장 이벤트를 통해 각 게임 개발 책임자가 시연 빌드를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별도의 공간에서는 미디어 간담회도 진행,

각 게임의 청사진을 밝혔으며, 개막 첫 날에는 김택진 엔씨 대표가 직접 무대에 올라 현재의 상황과 미래 방향성을 짚었다.

넷마블은 'RF 온라인 넥스트', '데미스 리본', '일곱개의 대죄 오리진' 등 다양한 게임으로 팬들을 맞이했다. 크래프톤은 신작 '다크앤다커 모바일', '인조이' 등 게임을 직접 시연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마련했다. 스마일게이트알피지는 신작 '로스트아크 모바일'을 최초로 선보이며 전시체험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올해 지스타서는 '2023 대한민국 게임대상'이 개최됐으며 네오위즈의 'P의 거짓'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에는 또 다른 강력 후보였던 넥슨의 '데이브 더 다이버'가 올랐으며,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VR: 시에라스워드' 등 이들 작품 또한 플랫폼, 장르 모든 측면에서 다양성과 게임성을 모두 입증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국내 최초 공간생물학 중요성 알린다

APAC 공간생물학 심포지엄 개최

글로벌 공간생물학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내에서 공간생물학 관련 행사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첫 오가노이드 전문 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지난 14일, 경기도 판교 소재 차바이오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제 심포지엄인 '다음 혁명을 위한 공간생물학'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아코야(AKOYA) 바이오사이언스, 비엠에스 3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관

한 것으로, 조직내 세포들의 공간적 이해관계를 연구하는 공간생물학의 중요성과 활용성을 알리고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됐다.

공간생물학적 분석은 생체조직 절편에서 다양한 바이오마커를 시각화하고 질병진행 및 약물반응에 따른 세포구성과 상호작용을 이해함으로써 생물학 연구에 포괄적인 통찰력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세포상호작용 연구, 바이오마커 발굴, 질병진단 분야에서 병원 및 학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 11명이 참여하여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몰레큘러다바이시스, 웅비메디텍 등 10여개의 후원사가 참가하여 현장 부스를 운영하였다. 또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되어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종만 대표는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상호 소통하는 자리로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어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최근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두 번째,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아코야로부터 'PhenoCycler-Fusion' 분석 수행 기관으로 공식 인증을 받은 사실도 공개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종만 대표(왼쪽 두번째)가 지난 14일, 경기도 판교 소재 차바이오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제 심포지엄인 '다음 혁명을 위한 공간생물학'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됐다. 'PhenoCycler-Fusion'은 아코야가 개발한 시스템으로 조직의 미세 환경에 존재하는 100여개의 세포의 표현형을 정확히 구별하여, 이웃한 세포들의 특성과 관계를 공간적으로 해석한다.

유대표는 "이번 행사가 아시아·태평

양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공간생물학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공간생물학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크게 뒤처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산업부-외교부, 몽골과 희소금속·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 韓-몽골 희소금속협력위원회

지속 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  
주요 프로젝트 현황 공유·연구개발

우리나라가 자원부국인 몽골과 희소금속 협력을 추진한다. 몽골 내 희소금속 개발에 협력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우리 정부는 핵심광물의 국내 공급망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20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1차 한-몽골 희소금속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우리측 대표로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을 비롯해, 외교부 에너지과학외교과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유관기관 등이 참석했고, 몽골 측에서는 잠발 간바타르 몽골 광업중공업부장관 등 대표단이 참

석해 희소금속을 비롯한 핵심광물 분야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2월 몽골 총리 방한 계기 양국 간 체결한 '한-몽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양국은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속 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또 몽골 내 희소금속 및 주요 프로젝트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간 핵심광물 분야 양자 및 다자 협력 현황과 연구개발 협력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몽골은 몰리브덴(생산량 세계 8위), 주석 등 다양한 희소금속이 매장돼 있고, 특히, 희토류가 다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양국 간 핵심광물 분야 협력 관계를 통해 국내 공급망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공식개발원조(ODA)사

업으로 추진 중인 '한-몽골 희소금속 협력센터 조성사업'의 착수식도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이호현 실장은 축사에서 "본 사업을 통해 몽골은 희소금속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고, 한국은 국내 공급망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몽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실장은 아울러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외교부 등 우리정부 대표단은 몽골 측 대표단과 별도 업무협의를 통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양자 및 한-미-몽 등 다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실장은 위원회에 앞서 진행된 잠발 간바타르 장관과의 면담에서 몽골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지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화진 환경부 장관(왼쪽)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다회용품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경부

## “다회용품 우수매장에 우대금리 적용”

### 한경부-중기부

다회용품 사용문화 정착 방안 논의  
다회용기·식기세척기 지원 확대

다회용품 사용은 활성화하되 소상공인 부담은 줄이자는 내용의 토론회가 20일 개최됐다. 정부는 이달 초순 종이컵을 일회용품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제한 조처에 유예기간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섰긴 했으나 다회용품 사용 독려를 철썬한 것은 아니다.

한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다회용품 사용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서울 강남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논의했다. 단, 다회용기 구매비용·세척 인력 등 소상공인이 지게 될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했다.

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또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고장수 전국카페시장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업계 대표로 참석했다.

한경부는 지난 7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품을 감량하는 방향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한 소상공인 매장 지원방안을 관

계부처와 협업할 계획이다. “향후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한 인센티브와 대체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방안 도출 등 해결과제가 남아 있다”고 한경부는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먼저 일회용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간 우수매장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가 다회용품 사용 우수매장을 지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금융 관련 우대금리 적용을 제시했다. 정부는 또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으로 다회용기 및 식기세척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의 참여를 위해 공동구매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국카페시장협동조합은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대체품 빨대의 업체별 공동구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 달 구축될 '협동조합 쇼핑몰'에 별도 수수료 없이 다회용품 생산 업체를 입점시킬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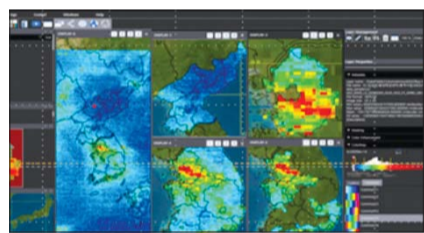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 논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해소하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환경보호가 서로 배척되는 목표가 아니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목표임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환경과학원, ‘정지궤도 환경위성’ 민간활용

㈜웨더뉴스와 대기환경 협력관계 구축  
환경위성 영상·데이터 제공해  
대기오염 예측 등 기업 컨설팅 활용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21일 (주)웨더뉴스와 대기환경 등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날 인천 서구에 위치한 환경과학원 본원에서 맺은 협약에 따라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영상 및 정보의 첫 민간 활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지궤도 환경위성은 우리나라가 지난 2020년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발사한 바 있다.

환경과학원은 실시간 환경위성 영상과 데이터를 제공하고, 웨더뉴스는 이를 대기오염 예측 등 기업 컨설팅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웨더뉴스가 아시아 각국 13개 지사를 통해 환경위성



환경위성의 한반도 대기질 분석 화면. /국립환경과학원

관측 영상을 방송하게 된다. 양측은 환경위성 콘텐츠 개발 육성과 관련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발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은 총 30종(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기후변화유발 물질 등 21종, 활용 산출물 9종)의 영상자료를 제공한다. 이들 자료는 환경위성센터 누리집(nesc.nier.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 지난 2020년 2월

남미의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으며 아시아 전역을 관측하고 있다.

환경위성센터는 △한·미·유럽 정지궤도 환경위성 협력을 비롯해 △제2차 아시아 대기질 국제공동조사 △판도라 아시아 네트워크를 통한 아시아 국가 환경위성 자료 공유 및 공동 활용 △아시아 전체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환경위성 자료를 국내외 사용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동시에, 위성자료 활용이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앞으로도 아시아 대기환경 감시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위성 자료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기재부 “해외복권, 국내 유통·판매 위법… 단속 강화”

대법원 판례 인용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20일 해외복권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최종 판시했다”고 밝혔다.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최근 수년 간 국내에서 웹사이트·모바일 앱·부인 단말(키오스크) 등으로 미국 복권 구매대행이 나타나는 가운데 국내법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법이 없었다. 다만 형법 제248조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 이를 중개한 자, 이를 취득한 자 모두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최종 판시했다. /뉴스1

고 있다.

지난 2021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수사위원회에 따라 시작된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됐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

을 강화할 것”이라며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일반 국민들도 온·오프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 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 ‘박차’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업무협약

안전보건공단이 20일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중소기업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산업현장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대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 추진 △기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협력 △위험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재정지원 및 교육 협력 등이다.

공단은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취약한 안전역량 강화 및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원하는 양 기관의 공감대 속에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보다 다양한 사업을 향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에 현대차

그룹 관련 기업이 참여하도록 재단이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안전보건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한다. 아울러 위험설비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도 중소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근로자 체험형 안전교육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 개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도 추진하게 된다.

안중주 공단 이사장은 “상생재단과의 지원 모델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돼 중소기업에 새로운 안전문화가 자리잡기를 희망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S 김호연 작가  
무대 시리즈 3

2023 JIWOO PRODUCTION PRESENTS

PLAY

"Rivals in love"

# 연 戀 적 敵 敵 적



한 여자를 **사랑한**  
두 남자의  
아이러니 여행기

2023.10.04 - 2023.12.31 대학로 유니플렉스 3관

|원작|김호연 소설 <연적> |프로듀서|황기현 |연출,각색|홍현우 |조명디자인|장영섭 |음향디자인|안형록  
|음악감독|정다운 |영상디자인|김태운 |무대디자인|이주은 |제작감독|전예정 |조연출|손연주 |포스터디자인|그라운드워크  
|출연|김준희 김규도 김상균 문원주 김동준 서원호 여우린 김단울 장혜민  
|주최·제작|극단지우 |기획|제이엘컴퍼니, (주)브라더후드 |후원|나무옆의자  
|예매|인터파크 1544-1555 |문의|02-332-4902



# 진주시, 전략적 접근 투자로 기업 17곳 안정적 유치 성과

미래투자기업 THANK YOU DAY LH와 행사 개최해 기업인 격려 바이오·항공우주산업 등 17곳 초청

진주시는 20일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2023 진주 미래 투자기업 THANK YOU DAY'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17개 투자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

'2023 진주 미래 투자기업 THANK YOU DAY'는 지난 3년간 진주시에 신규투자를 통해 기업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는 투자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속적인 투자활동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 초청된 기업은 ▲아미코젠(주) ▲(주)ANH스트럭처 ▲우현선박기술(주) ▲준엔지니어링(주) ▲(주)캐스 ▲미래항공(주) ▲(주)제이디 ▲(주)모아소프트 ▲(주)레드진 ▲맥시컴퍼레이션(주) ▲(주)휘게로 ▲



진주시가 20일 '진주 미래 투자기업 THANK YOU DAY' 행사를 개최했다. /진주시

케이테크(주) ▲(주)스텝 ▲(주)바로텍시너지 ▲(주)호산 ▲제이앤항공(주) ▲에스앤에스밸브(주) 등 바이오·항공우주산업·세라믹 소재 등 17개의 성장투자 및 유망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 3년간 3300억 원, 1100명 고용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투자를 추진 중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진주지구)에 준엔지니어링(주), (주)제이디 등 2개 기업이

약 1만 평 규모의 대규모 부지 분양 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 본부에 제출하는 입주 신청식도 가져, 향후 항공산단의 분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4년간 대기업에서 경영전략 및 대외협력 등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 기업유치 기업 접촉 등 초기 유치활동부터 전략

적으로 접근해 투자를 제안하고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기업유치를 이끌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날 조규일 진주시장은 "기업의 투자는 우리 시의 미래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며 "투자에 감사드리며 행정력을 집중해 지역 내 많은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서 경제 불황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자체 간 기업유치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민선 7기 기업유치단을 신설하여 기업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8기 출범 후 항공우주사업 단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지역 전략산업 관련 유망기업 유치를 강화했다. 또한 지난 9월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신·증설 및 관내 기업의 관내 이전 투자에 따른 맞춤형 지원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진주(경남)=장병호 기자

metrobusan1@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순천시

#### 순천만 용산전망대 긴급 폐쇄

순천시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순천만 용산전망대를 11월 21일부터 긴급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순천만 용산전망대는 2010년 지상 2층 목구조형식으로 설치되어 우리나라 최대 갈대군락지인 순천만습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랜드마크다.

순천시는 안전한 시설물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했으나, 구조물 이상을 감지하여 긴급히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한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 창원시

#### 시청 홈페이지 사용자 중심 개편

창원특례시는 시청 홈페이지를 사용자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하여 20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날 선보인 창원시청 홈페이지는 부분 개편한 것으로, 편의성 및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시정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부분 개편된 이번 홈페이지는, 지난해 개편에 이어 보다 내실있고 편리한 웹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창원(경남)=장병호 기자

### 산청군

####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

산청군은 20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경남시장군수협의회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이승화 산청군수를 비롯해 간부 공무원 등이 참여해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경남도 내 18개 모든 시군이 동참하는 이번 캠페인은 지난 10일 밀양시를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승화 군수는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면 경남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하루 빨리 특별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 영주시

#### 자원봉사 대회서 '우수기관상'

영주시는 지난 17일 개최된 경북도 자원봉사 대회에서 '2023년 자원봉사 시군평가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경북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참여도, 공무원 봉사활동 및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실적 등 총 7개 세부 지표에 따라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시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영주안에(安愛)청년봉사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대학생 및 청년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촉진한 점과 집중호우 수해복구를 위해 지난 7월부터 공무원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 참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영주(경북)=김동국 기자 kdq7677@

## 대구시-국방부, 군공항 이전사업 체결 TK 신공항 건설사업 시행 공식화

대구시, 11.5兆 이상 국책사업 책임진 부지에 '글로벌 신성장 도시' 조성

대구광역시시는 20일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앞서 국방부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기부대양여방식:사업주관기관에 대체시설(TK 신공항)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現 K2)을 양여하여 국가시설을 이전하는 방식)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대구·경북 백년대계인 TK 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합의각서에는 대구광역시와 국방부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성공을 위해 상호 신뢰·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각 기관의 책임, 역할, 권한 등에 대한 합의사항, 기부재산, 양여재산의 내역과 평가시기,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합의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지난 8월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다.

'TK 신공항특별법'에 의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는 대구광역시는 합의각서 체결로 11조 5천억 원 이상의 군 공항, 공군 부대, 군사시설 등을 이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하고, 이전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도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 SPC 구성 등의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30년 개항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다.

대구 군 공항이 떠난 210만 평 부지는 미래 첨단산업·관광·상업·금융 중심의 'New K-2, 글로벌 신성장 도시'를 조성한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 부산시, '대국민 친환경 캠페인' 대성황

부산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공감대 조성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진행한 '대국민 친환경 캠페인'에 72만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기후위기 등 인류의 당면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비전을 국민과 공유하고자 '엑스포를 통한 기후변화 저지(Stop Climate Change with EXPO)'를 컨셉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 3~4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방문을 계기로 서울 광화문 광장과 코엑스 K팝 광장, 부산역 광장에서 1차 그린를 챌린지 캠페인을, 6월에는 서울마당과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2차 그린를 챌린지를 진행해 총 4만1천425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시

## 부산시교육청, 몽골에 학교급식 정책 공유

몽골 정부 학교 급식 관계자 방문

몽골 정부 학교 급식 관계자들이 우수한 학교 급식 정책을 배우기 위해 부산에 모인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1일부터 23일까지 몽골 정부의 학교 급식 관계자 10명이 학교 급식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시교육청을 방문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몽골 정부는 학교 급식 전국 확대를 위해 '급식 환경 개선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몽골 학교 급식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다. 부산교육청은 이들에게 학교 급식 발전 경험, 관리제도 구축, 실제 운영 등 학교 급식 정책 전반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들은 먼저 21일 교실 배식 학교인 양운초를 방문해 식재료 검수, 배

식, 시식 등 학교 급식 전반에 대해 알아본다. 23일에는 식당 배식 학교인 부산일과학교를 방문한다. 소통과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 학교의 카페형 학생 식당을 둘러보며 학교 급식의 다양한 모델을 경험한다.

22일에는 부산영양교육체험센터를 방문해 김치의 날 맞이 '2023년 영양·식생활 교육 체험 한마당' 행사에 참여한다.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 주민 등과 함께 '김치 담그기' 활동을 펼치며, 우수한 우리 식문화를 체험해본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몽골 정부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학교 급식 모델 개발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또 이번 방문이 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경북도, '메타포트' 정식 서비스 시작

전국 최초 확장형 하이브리드 플랫폼

경북도는 20일 '경북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이하 '메타포트')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메타포트는 경북도가 2022~2024년까지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메인 공간으로 구성해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경북 메타버스 통합 플랫폼이다.

메타포트는 이용자들이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체험을 통해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메타버스에 대한 접근성

을 높이고, 경북이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개발하게 됐다.

메타포트는 전국 최초 확장형 하이브리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웹3.0 기술을 응용하고, 웹(Web)과 앱(App)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며 Open-API\*를 이용해 무한한 확장성을 고려해 만든 플랫폼이다.

메타포트가 제공하는 Open-API를 통해 로그인, 아바타 등 연동이 가능해져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이 보유한 메타버스 콘텐츠를 하나의 통합된 서비스처럼 이용할 수 있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 “CGV 매점, 재미·가치 소비 즐기는 복합문화 공간 목표”

## 인터뷰 | 김기봉·김재연 CGV F&B사업팀

특화 메뉴 개발, 운영 효율화 주력 IP 활용 이색 컬래버·굿즈 기획도 “보는 즐거움에 먹는 즐거움 선사”

‘영화볼 때는 팝콘’이라는 공식은 옛말이다. CGV는 영화관을 찾는 관객들에게 이던 통념을 깨고, 보는 즐거움 외에 먹는 즐거움도 함께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먹거리를 개발하고 있다. 과거 팝콘과 콜라, 조금 더 보태어 나초와 핫도그에 머물던 영화관 먹거리는 피자, 치킨, 하이볼 등으로 다양해졌다.

영화관 F&B(식음료)가 고급화되고 다양해지기까지 CGV F&B사업팀의 노력이 있었다. CGV F&B사업팀은 CGV에서 판매하는 모든 식음 제품의 기



슬램덩크 컬래버 메뉴 /CGV

획, 개발, 마케팅, 프로모션 등을 총괄한다. 김기봉(과장)·김재연(대리)님을 만나 CGV F&B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김기봉 과장은 2012년부터 F&B 팀 소속으로 특화 매장 메뉴 개발과 매점 운영 효율화에 힘쓰고 있다.

팝콘과 콜라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일반 매장과 달리 특화 매장에서는 인덕션, 튀김기, 오븐 등 전문 조리 장비를 활용해 메뉴를 구현해낸다.

씨네편의 경우 ‘고피자’와 협업해 주류와 피자를 주력으로 판매하며, CGV에서만 맛볼 수 있는 ‘쏘옥쏘옥피자’가 있다. 음료는 수제맥주와 최근 주류 시장에서 인기있는 ‘짐빔 위스키’를 사용한 하이볼을 판매한다.

김 과장은 “영화관 방문의 즐거움을 증대시킬 다양한 식음료를 선보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헬스플레저’ 트렌드에 맞춰 저당 음료와 무알콜 주류와 같은 메뉴를 지속적으로 론칭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운영 효율화에도 고민이 많다. 최근에는 조리 동선과 메뉴 제공 동선을 구분하는 레이아웃 개선 작업을 완



CGV F&B사업팀 (왼쪽)김기봉 과장 (오른쪽) 김재연 대리

료,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해 고객이 메뉴를 주문하고 받기까지의 시간을 단축시켰다.

“주문을 받는 대로 상품을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서 ‘팝콘워머트레이’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온장기능을 탑재해 온기를 유지한 채 보관이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또, 고객님의 주문한 상품을 다른 고객님의 것과는 혼동하지 않도록 ‘픽업트레이’도 선보였습니다. 장비 개발을 통해 제품의 맛과 품질은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높여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김기봉 과장이 전반적인 매점 운영에 관여한다면, 지난해부터 팀에 합류한 김재연 대리는 ‘카카오 프렌즈 춘식이 컬래버’와 ‘슬램덩크’ ‘스즈메의 문단



속’ ‘짱구는 못말려’ 등 각종 굿즈 기획을 맡고 있다.

블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영화관인 만큼, 대중적인 인지도를 보유한 IP를 최우선적으로 선정해 제품으로 선정한다.

지난 9월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춘식이’와 컬래버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춘식이 고구마 팝콘’을 비롯해 ‘아이스고구마라떼’, ‘피규어, 뱃지, 랜덤 키링 등 상품을 선보인 것. 그 중 ‘춘식이 랜덤 키링’은 소장욕구를 불러일으켜 빠른 속도로 판매됐다.

김 대리는 “팝콘은 ‘매점의 꽃’이기 때문에 ‘춘식이 고구마 팝콘’에도 심혈을 기울였다”며 “맛도 중요하지만, 보는 즐거움도 충족시키기 위해 팝콘알갱이

의 색을 보라색과 노란색 두 가지로 제작했고, 춘식이의 모습을 패키지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영화관인만큼 영화 IP(지식재산)를 활용한 제품도 꾸준히 출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강제로 ‘더 퍼스트 슬램덩크’와 ‘스즈메의 문단속’ 등 관련 굿즈들이 빠른 시간 내에 완판된 바 있다. 특히 개봉 당시 기획한 ‘슬램덩크 유니폼 키링’은 소비자들의 재출시 요청이 쇄도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의외성’에 주안점을 두고 컬래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로부터 ‘조합이 신기한데 맛도 있네?’, ‘영화관에서 이런 것도 하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팀원들과 회의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작년에 농심과 함께 컬래버한 ‘짜파게티 팝콘’이 의외의 조합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끝으로 김기봉 과장과 김재연 대리는 “CGV 매점이 극장 안에 있는 스낵 매장에 그치지 않고, 영화 관람을 포함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구매하고 그것을 통해 재미는 물론 가치 소비까지 이어지는 공간으로 자리잡아가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년에도 재미 있고 다양한 컬래버를 준비하고 있으니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CJ제일제당, 베트남 전역에 ‘비비고’ 전파

3개월 동안 ‘한국의 여정’ 행사 만두, 김치 등 선봬... 20만명 운집

CJ제일제당이 베트남의 발달된 길거리 음식 문화를 활용해 K-푸드를 전파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8월부터 약 3달 동안 베트남에서 운영한 ‘한국의 여정(Korean Journey)’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행사는 베트남 11개 도시, 90개 지역에서 진행됐으며, 푸드트럭을 타고 호치민을 시작으로 하노이까지 베트남 전역을 누리며 비비고 제품들을 선보였다. 전통시장, 주택가, 야시장, 대학가에서 만두, 김치, 떡볶이, 김스낵 등을 선보인 결과 총 방문객 수는 약 20만명에 이른다.

CJ제일제당은 아직 비비고 제품들



CJ제일제당이 베트남에서 푸드트럭 행사를 진행했다. /CJ제일제당

을 판매하지 않는 지역인 박닌, 하이퐁 등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행사 현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단연 만두였다. 만두를 처음 접한 한 소비자는 “스프링롤, 덩슴과 비슷하면서 피는 더 얇고 소를 씹는 식감은 더 풍부하

다”며 현장에서 바로 비비고 만두를 구매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떡볶이를 직접 맛볼 수 있어 좋았다”, “다양한 K-푸드를 먹어볼 수 있는 자리였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CJ제일제당은 현지소비자와의 접점 확대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제품에 대한 반응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던 행사라고 평가했다. 현장에서 받은 소비자 피드백은 향후 베트남 식품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CJ제일제당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CJ 푸드 베트남(김앤김)과 CJ 까우제, CJ 민달푸드 등 베트남 현지 식품업체 3곳을 인수한 바 있으며, 지난해 2월 최첨단 통합생산기지를 구축하며 베트남 식품사업 확대에 적극 나섰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대상 증가, ‘김치 감동 나눔 캠페인’ 전개

주변 이웃에 2t 규모 김장김치 전하

대상(주)증가는 ‘김치의 날’을 맞아 총 2t 물량의 증가 김장김치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김치 감동 나눔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치의 날’은 김치 산업의 진흥과 김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김치의 영양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대상(주)증가는 김치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로서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유산인 김치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나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홍보전문가인 서경덕 교수와 함께 ‘김치 감동 나눔 캠페인’을 펼쳤다.

먼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증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전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했다. 증가 인스타그램 팔로우 후 이벤트 게시글 내 ‘김치를 전달하고 싶은 사연’을 댓글로 남긴 참여



대상(주)증가가 ‘김치 감동 나눔 캠페인’을 통해 ‘다니엘복지원’에 김장김치 300kg를 전달했다. 김치 방문 나눔 행사에는 서경덕 교수(왼쪽), 박은영 대상(주) 식품BU장 전무(가운데), 지승현 다니엘복지원장이 참석했다. /대상

자를 대상으로 총 100명을 선정해 ‘증가 김장김치’ 각 10kg씩을 발송했다.

SNS 당첨자 3명과 ▲다니엘복지원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원주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3곳에는 18일, 대상(주)박은영 식품BU장 전무, 이정훈 BE그룹장과 서경덕 교수가 직접 방문해 증가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구매패, 홀리데이 컬렉션 제품 선봬

‘윈 포레 도르’ 캔들 출시

‘구매패’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색다른 제품을 마련했다.

아모레퍼시픽은 파리 니치 향수 브랜드 구매패가 2023년 홀리데이 컬렉션으로 ‘윈 포레 도르’ 캔들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한정판으로 선보이는 ‘윈 포레 도르’ 캔들은 겨울 숲의 차갑고 깨끗한 향과 따뜻한 시트러스 향이 어우러진

것이 특징이다.

구매패는 매년 연말 분위기에 걸맞은 디자인을 다양하게 선보여 왔다. 올해 주제는 ‘눈 내리는 겨울 밤, 한 소녀가 발견한 신비로운 책’이다. 이에 따라 감각적인 꽃 무늬와 금박의 솔방울이 어우러진 고급스러운 일러스트를 디자인에 담았다.

아울러 구매패는 이번 한정판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캔들과 같은 향의 크리스



구매패 오는 20일부터 2023년 홀리데이 컬렉션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

마스 센티드 세라믹 오너먼트, 미니 캔들, 성냥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스타벅스

## ‘딸기 라떼’ 한정 출시

스타벅스코리아는 21일부터 ‘스타벅스 딸기 라떼’를 한정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스타벅스 딸기 라떼’는 부드러운 흰 우유 위에 입안 가득 씹히는 상큼한 딸기 과육이 층을 이뤄 산타를 연상시키는 비주얼이 눈길을 끄는 음료다. 2019년 첫 출시 이후 봄 스테디셀러 음료로

자리 잡아 누적 판매 530만잔을 돌파했으며 봄에만 200만잔 이상 판매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특별히 올해는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딸기 수확철에 맞춰 평년보다 3개월 출시를 앞당겨 겨울부터 맛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이즈가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단일 사이즈가 아닌 툴, 그랜데, 벤티 3가지 사이즈로 출시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신원선 기자

# 자가면역 질환부터 중추신경계까지... K바이오 中 진출 박차

中 고령화에 치료제 수요 증가  
강스템바이오텍, 中서 특허 취득  
대웅제약, 신약 등 중국 수출 본격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팜, 강스템바이오텍, 대웅제약 등은 최근 중국에 협력업체를 확보하거나 판매망 구축 등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제약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눈을 돌린 이유는 중국의 고령화로 치료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이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중국 제7차 전국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3.5%로 지난 2013년 9.7% 보다 3.8%포인트 증가했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은 중국의 인구 고령화 추세가 더 빨리질 전망이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중국 진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품질 좋은 치료제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제약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업체 가운데 강스템바이오텍은 면역조절능 특화 세포치료제 개발기술의 중국 특허를 취득해 중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강스템바이오텍에 따르면 이번에 중국에서 특허를 취득한 기술을 활용할 경우 차별화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다.

해당 기술을 통해 NOD2 수용체가 활성화되면서 세포의 면역조절기능이 극대화된다. 나아가 세포로부터 면역조절인자 분비가 증가해 염증반응은 억제되는 것이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아토피성 피부염, 류마티스 관절염 등 동물 모델에서 줄기세포가 발현하는 NOD2 수용체를 활

성화했을 때 면역 및 염증 조절에 대한 치료 효능이 더욱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강스템바이오텍은 NOD2 수용체 변이가 자가면역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 착안해 기술을 개발해 왔다.

강스템바이오텍 관계자는 “미국, 유럽, 일본에 이어 중국에까지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며 “중국 내 파트너사를 확보하는 등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지난 15일 중국의 의약품 수출입 전문기업 메헤코 인터내셔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웅제약은 자체 개발 신약을 비롯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체 품목들에 대한 중국 수출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중국 내수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 오는 2030년까지 신약 매출 1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의 장벽

을 넘어 온 SK바이오팜도 중국 진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SK바이오팜은 중국 중추신경계 전문 제약사 이그니스 테라퓨틱스가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 상업화를 위한 임상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SK바이오팜은 중국 진출을 위해 글로벌 투자사인 6 디멘션 캐피탈과 이그니스를 합작 설립했다.

아울러 SK바이오팜은 이그니스에 세노바메이트와 솔리암페톨을 비롯해 카리스바메이트, SKL13865, SKL20540, SKL24741 등 신약 후보물질을 기술수출했다. 이에 따라 이그니스는 향후 기술 도입한 다른 주요 치료제 임상에도 나설 계획이다.

SK바이오팜 측은 “개발 진행 속도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24년 단계별 기술료를 최대 100억원 가량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청하 기자 mllee236@metroseoul.co.kr

## “와인·푸드, 용품까지 한자리에 모았어요”

8번째 ‘와인픽스 분당정자점’ 오픈  
맥주·사케 등 2400여종 제품 구비  
프리미엄 와인·위스키 등 선착순



와인픽스 분당정자점.

/나라셀라

와인 문화를 선도하는 와인 수입사 나라셀라가 도심 속 와인 아울렛 ‘와인픽스’의 8번째 매장으로 ‘와인픽스 분당정자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10)을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와인픽스는 고객이 와인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도 가성비, 테마, 음식, 교육, 배송 등을 고려해 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매장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21년 150여 평 규모의 성수점을 첫 번째 매장으로 양평, 동탄, 부산, 여의도, 광주봉선점에 이어 올해 ‘와인 라이브러리’라는 콘셉트의 플래그십 스토어 청담점과 분당정자점을 오픈하는 등 지점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오픈한 분당정자점은 와인을

비롯해 위스키, 사케, 맥주 등 다양한 주류 제품에서부터 치즈, 글라스 등 푸드와 용품까지 약 2400여 종의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나라셀라는 와인픽스 분당정자점 오픈을 기념해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먼저 샴프 오브리옹, 샴프 마고, 샴프 무풍 로질드 등 보르도 그랑 크뤼 1등급부터, 부르그뉴, 이태리, 미국, 칠레 등 각국 프리미엄 와인과 발베니, 맥

켈란, 산토리 등 인기있는 위스키를 한정 수량 선착순 판매한다.

또 오는 12월 2일까지(3주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에 걸쳐 산토리 가쿠빈, 발베니 12년 더블 우드, 지론 3종, 샴페인 사바르 4종, 돔 페리뇽 2013, 글렌알라키 21년 배치 4를 한정 수량 판매하는 위클리 리미티드 이벤트도 진행한다.

구매 금액별 풍성한 사은품 증정 행사도 마련했다. ▲50만원 이상 구매 시 자페라노 보르도 글라스(2p, 선착순 30명) ▲100만원 이상 구매 시 슈피겔라우 피사 1L 디켄터(선착순 10명) ▲300만원 이상 구매 시 라귀올 와인 오픈너(선착순 5명) ▲1000만원 이상 구매 시 이노베이티브 모던 레스토랑 KORII 2인 식사권(선착순 1명)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와인픽스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에이피알, ‘널디’ 뉴욕서 캡모자·비니 등 공개

롯데와 협업... 美 시장 진출 박차

글로벌 뷰티테크기업 에이피알의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널디’가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널디는 자사몰에서 주얼리 브랜드 옷 뉴욕(OHTNYC)과의 협업한 의류, 캡모자, 비니 모자 등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옷 뉴욕은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얼리 브랜드다.

특히 ‘하드웨어 트랙 세트’는 널디의

2라인 트랙 슈트에 옷 뉴욕의 시그니처 피어싱을 더한 제품이다.

아울러 널디는 ‘컷아웃 하드웨어 세트’를 통해 많은 소비자 선택할 수 있는 입기 쉬운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이밖에 캡, 비니 등 액세서리 류에도 옷 뉴욕의 피어싱을 적용했다.

이번 콜라보 제품들은 미국 시장에 한정해 판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널디는 제품의 색감이나 스타일링을 미국 소비자를 겨냥해 기획했다. /이청하 기자

## 중근당건강 ‘블랙페스타’ 기획전 선봬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중근당건강이 1년에 단 한 번 진행되는 행사를 통해 고객 감사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중근당건강은 자사몰 ‘중근당건강몰’에서 오는 23일 오전 10시까지 ‘블랙페스타’ 기획전이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블랙페스타 기획전은 1년에 딱 한 번 열린다. 올해는 중근당건강 인기 제품을 3개 구매할 경우 1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청하 기자

## 메디씨에이, 제약-헬스케어 부문 대상 선정

제1회 디지털헬스케어 어워드

메디씨에이는 ‘제1회 디지털헬스케어 어워드’에서 제약·헬스케어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디지털헬스케어 어워드’는 대한디지털학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의료기기산업협회가 후원하고 있다.

대한디지털학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 메디씨에이는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메디씨에이는 척추 임플란트 부문 국내 1위 기업이다. 또 국내 최초로 3D 프린팅을 통한 신기술로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국내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뿐만 아니라 미국, 칠



박제나 메디씨에이 이사(오른쪽)와 김현정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수석 부회장(왼쪽)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동화약품.

레 등 해외법인을 통해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현지 주요 의사들과 ‘의학기술 자문단’을 결성해 의료기기 공동연구 및 투자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청하 기자

## 애경, AGE20'S 디오리진 에센스 팩트 선봬

선케어·톤 보정 등 3가지 기능 담아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의 대표 화장품 브랜드 ‘에이지투웨니스(AGE20'S)’가 선케어, 톤 보정, 베이스 메이크업 등 3가지 기능을 한 번에 선보이는 신제품을 마련했다.

에이지투웨니스는 ‘디오리진 에센스 팩트’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디오리진 에센스 팩트’는 메이크업 기능과 기초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의 촉촉함을 갖추고 있다. 이 제품은 히알

루론산, 콜라겐, 엘라스틴 등으로 이뤄진 에센스를 72% 함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에이지투웨니스는 고체 파운데이션 안에 수분 성분의 에센스를 담기 위해 에이지투웨니스의 독자 기술인 ‘에센스 포켓 기술’을 적용했다. 또 에이지투웨니스는 ‘피지 흡착·피지 관리 성분’을 첨가해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높였다. 아울러 피부 톤과 상태에 따라 베이스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

## 지씨씨엘, 효율적 검체 분석관리 체계 수립

아·태 바이오분석기업 톱10 선정

지씨씨엘이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검체 분석 기술을 차별화하고 있다.

임상시험 검체 분석 기관 지씨씨엘(GCCL)은 미국에서 ‘2023년 아시아·태평양 바이오분석 서비스 기업 톱10’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미국의 생명공학 전문지 ‘라이프 사이언스 리뷰’는 매년 구독자의 추천, 설문조사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는 기업을 평가하고 있다.

지씨씨엘은 써모피셔의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적인 검체 분석 관리 체계를 수립했다. /이청하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2023 뉴테크놀로지 포럼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의 트리거

2023. 11. 22 (수)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기조강연: 하토가이 준 한국후지필름BI 대표

■강 연: 이건복 마이크로소프트 상무 / 김상윤 중앙대학교 교수 / 오경석 영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행사명 : 2023 뉴테크놀로지 포럼

◎ 일시 : 2023년 11월 22일(수) 14~18시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3 뉴테크놀로지 포럼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주제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의 트리거

◎ 장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5길 19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등록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당일 카드결제 가능)

※ 포럼 참석 선착순 100명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metro

metro경제



**NH농협은행,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NH농협은행 서울본부는 지난 17일 천호1동 주민센터와 광진구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 서울지역본부에서 지원한 사랑의 김장 김치는 천호1·3동 주민센터, 주민센터광진구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됐다. /NH은행



**BBQ, 가맹점주와 함께 1만 마리 치킨 기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패밀리와 함께하는 치킨릴레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1만 마리의 치킨을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BBQ



**교보증권, '아름다운 가게'에 의류 2500여점 전달**

교보증권은 창립 74주년을 기념하고 사회와 환경 그리고 세상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드림이 나눔웃장' 활동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1월 첫째 주부터 약 3주간 나눔웃장 캠페인을 전사적으로 전개했으며 봉사 및 지점 임직원 1000여명이 적극 동참해 총 74포대가 모였다. 사용 가능한 의류 총 2500여 점을 친환경 세상을 만드는 비영리법인 '아름다운 가게'에 전달했다.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지역아동센터에 책장 기부**

유진투자증권은 신입직원들이 손수 제작한 아동용 책장을 지역아동센터에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입사 2년차 신입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인 '리뷰데이'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2021년 입사한 직원 33명이 참여해 지난 10일 용산구 소재 공방에 모여 아동용 책장 11개를 제작했다. 제작된 책장은 지난주 영등포 디모테지역아동센터에 기부됐다. /유진투자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임감사, 최기의 KS고용정보 대표**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신임감사에 최기의 전 KS한국고용정보대표이사(사진)가 취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신임감사는 부산남고와 동아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헬싱키경제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경희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3년 주택은행(KB국민은행 전신)에 입행한 '30년 은행원' 출신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현대자동차, 'TCR 월드투어' 드라이버 부문 챔피언**

**엘란트라N TCR, 종합 우승 확정 '차이나 챔피언십'서도 정상 올라**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최정상급 투어링카 대회 '2023 TCR 월드투어'에서 드라이버 부문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현대차는 20일 엘란트라N TCR(국내명 아반떼 N TCR)이 마카오에서 열린 TCR 월드투어 최종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드라이버 부문 종합 우승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엘란트라N TCR 경주차로 출전한 노베르트 미첼리츠 선수는 17~19일 마카오 기아 서킷에서 개최된 첫 번째 결승 레이스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미첼리츠는 개막전인 포르투갈 대회부터 3차전 이탈리아, 8차전 호주 및 9차전 마카오 대회까지 우승하며 이번 시즌 드라이버 부문 챔피언에 올랐다. 같은 경주차로 출전한 미켈 아즈코나 선수는 첫 번째 결승 레이스 4위에 올랐



'2023 TCR 월드투어' 마카오 대회에서 엘란트라 N TCR이 주행하고 있는 모습. /현대차

으며, 드라이버 부문 종합 5위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BRC 현대 N 스퀘드라 코르세팀 은 총 805포인트로 팀 부문 종합 3위를 차지했다.

현대차는 TCR 월드투어와 같은 기간 마카오에서 개최된 '2023 TCR 차이나 챔피언십' 최종전에서도 서킷 경주차 엘란트라 N TCR이 정상에 올랐다. '현대 N(Hyundai N)'

팀의 마틴 카오 선수는 첫 번째 결승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엘란트라 N TCR의 강력한 성능을 중국 모터스포츠 팬들에게 선보였다.

올해 5월 상해 국제 서킷에서 열린 TCR 차이나 챔피언십 개막전부터 좋은 성적이 이어온 마틴 카오는 6라운드 마카오 대회를 끝으로 드라이버 부문 종합 1위를 차지했으며 엘란트라 N TCR 역시 모델 부문 중

합 1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팀 부문에서는 현대 N 팀이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지난 4월 고성능 N 브랜드의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 선언한 현대자동차는 이번 TCR 차이나 챔피언십 우승을 기반으로 중국 내 N 브랜드 팬덤을 확고히 구축하고 고성능 경주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틸 바텐베르크 N 브랜드 & 모터스포츠사업부 상무는 "올해 엘란트라 N TCR과 함께 마카오에서 열린 TCR 월드투어와 TCR 차이나 대회 모두 우승을 차지해 정말 자랑스러우며 이는 드라이버들과 팀원들이 합심해 꾸준히 노력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모터스포츠 활동을 통해 N 브랜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내년 대회도 철저히 준비해 고객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화비전, 상생협력 체제로 60개 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중소 상생협력 파트너 간담회 신제품 교육·시연 등 의견 주고받아**

한화비전이 파트너 상생협력 체제를 기반으로 국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한화비전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대·중소 상생협력 파트너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대·중소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멘토기업인 한화비전이 중소기업(주관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된 '한화비전 상생협력 파트너 간담회'가 열린 한화비전 판교 R&D센터 대강당.

한화비전은 지난 2020년부터 회사의 비전 기술(AI, 영상처리, 광학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 중소기업의 공공조

달 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수입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1개 단체의 120개 중소기업을 지원해 왔으며, 매년 2회에 걸쳐 대·중소 상생협력 파트너 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화비전 신제품 교육 및 시연, AI 카메라 솔루션 응용사례 소개, 상생협력 신제품 라인업 운영방안 논의, 제품 인증 및 영업 기술 모색 등 동반성장을 위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한화비전 판교 R&D센터, 대구

/양성운 기자

종합유통단지 전자관, 대전무역회관 등 참여 중소기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 열린 간담회에는 3일에 걸쳐 총 60개 중소기업에서 77명이 참여했다.

조만간 한화비전 한국영업담당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하는 상생협력 지원 사업으로 한화비전 핵심 기술과 중소기업의 실용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국산 제품을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많은 중소기업이 공공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한화비전과 동반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고려대 교원 5명, HCR 명단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김중승 교수, 10년 연속 선정**

글로벌 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vate Analytics, 전 톰슨 로이터 지적재산 및 과학분야 사업부, 이하 클래리베이트)가 발표한 2023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CR) 명단에 고려대 교원 5명이 선정됐다.

고려대학교는 20일 고려대 교원 김중승(화학과), 우한영(화학과), 노준홍(건축사회환경공학부), 안춘기(전기전자공학부) 교수와 제2소속이 고려대인 클라우스 로버트 뮐러(인공지능학과) 교수 등 총 5명이 HCR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김중승 교수는 2014년 이래 화학 분야에서 10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노준홍 교수는 크로스필드(Cross-field) 분야에서 6년 연속 선정됐고, 안춘기 교수는 공학 분야에서 5년 연속 선정됐다. 클라우스 로버트 뮐러 교수는 크로스필드 분야에 5년 연속 선정됐으며 우한



(왼쪽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고려대 김중승(화학과), 우한영(화학과), 노준홍(건축사회환경공학부), 클라우스 로버트 뮐러(Klaus-Robert Muller, 인공지능학과), 안춘기(전기전자공학부) 교수. /고려대

영 교수는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크로스필드 분야에 이름을 올렸다.

고려대 관계자는 "석탑연구상, 석탑기술상과 같은 다양한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환경 위에 창의와 혁신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건강한 연구 생태계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라며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연구중심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

**현대그룹, 차세대 여성리더 적극 양성**

**3년 과정 여성리더십 프로그램**

현대그룹이 차세대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여성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일 현대그룹에 따르면 현대는 그룹 계열사 과정급 이상 중에 선발한 여성리더 20명을 대상으로 3년 과정의 여성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최근 세계의 화

두로 떠오른 DEI 가치경영(Diversity·다양성, Equity·공정, Inclusion·포용)을 중심으로 리더십·온라인 MBA·디자인 싱킹 등의 분야로 나눠 여성리더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이 자리에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도 직접 참석해 이들과 소통하며 여성리더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인사**

- ◆공정거래위원회△입찰담합조사과장 이득규 △하도급조사과장 오동욱
- ◆경희대의료원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경희대학교의료원장 김성완 △경희의료원장 겸 경희대학교병원장 오주형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 겸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장 이우인
-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대통령비서실 파견근무 백형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담당관 양운석
- ◆한전원자력연료 △1직급 승격 △기술

본부 최재돈 △사업관리실 윤종목 △세라믹생산처 김창우 △2직급 승격 △감사실 김명기 △인사노무처 유조환

**부음**

▲박민씨 별세, 박병연(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씨 부친상 = 20일 오전 5시30분, 전북 전주 시티장례문화원 특201호, 발인 22일, 장지 정읍 선영. 063-274-4444

# 인생은 길고 수익모델은 무한하다



임 경 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문득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들이 우리를 그냥 스쳐지나갈까? 그 많은 아이디어 가운데 '이거면 돈 좀 되겠는데'라고 생각이 드는 아이디어들도 꽤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쁜 일상에 쫓기고, 의지를 단단히 세우지 않는다면 그런 아이디어들은 모두 사장되고 만다. 이렇게 소멸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만들어졌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 훨씬 윤택해졌을 것이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업은 이렇게 개인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요즘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앱스토어를 보자. 그 또한 누군가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을 것이다.

우리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앱스토어 창안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의 최초 발의자는 스티브 잡스가 아닌 애플의 직원일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아이디어를 수익모델로 전환하고, 사업화하는 능력인데 스티브 잡스는 그러한 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창업 아이디어는 밤하늘의 별처럼 수없이 많지만 그 것을 돈되는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핵심과정이 수익모델화 작업이다.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라도 현실적인 수익모델로 구현되지 않는다면 부를 일굴 수 없다. 따라서 창업은 수익모델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 누가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하느냐에 따라 부의 파동이 달라질 것이다.

수익모델(또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부름)은 어떠한 상품을 어떻게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이다. 수익모델이 없는 사업은 그야말로 양꼬 없는 찌빵이다. 한마디로 수익모델이 곧 돈이다. 아직 사업화되지 않은 수익모델도 기업사냥꾼의 먹이가 될 정도다. 창업은 수익모델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1995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산호세(San Jose)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출신인 피에르 오미디아르(Pierre Omidyar)가 옥션웹(AuctionWeb)을 창업했다. 그는 결합이 많은 레이저 포인터를 첫 품목으로 내놓았는데 14.83달러에 팔려나갔다고 한다. 그 비결은 인터넷 경매에 있었다. 판매자가 판매가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니즈를 가지고 있는 구매자가 구매가를

책정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구매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구매가가 올라가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 이후로 공동구매, 가격비교 구매, 역경매 등 신종 수익모델이 불티나게 팔렸다.

10년이 훨씬 지난 2007년엔 백수 생활을 즐기던 젊은이들이 또 시장의 판을 바꾸었다.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들이 머물던 월셋집을 빌려주고, 아침식사까지 제공하는 일이었다. 동갑내기 친구 브라이언 체스키와 조 게비아가 저지른 일은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라는 수익모델로 관광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우버의 공유택시, 소카의 차량공유, 패스트파이브의 공유오피스 등 온갖 공유모델로 확장되어 발전했다.

대동강물을 판 봉이 김선달은 강물을 소유하지도 않았고, 강물을 퍼다가 상품을 만들지도 않았다. 그래도 돈을 벌었다. 목표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교묘한 지략을 펼친 것이 그의 수익모델이었다. 그 옛날부터 오늘날까지도 인생은 길고 수익모델은 무한하다. 문제는 스쳐 지나갈지도 모르는 아이디어를 수익모델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학습역량에 있다.

/임경수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수/성인학습자지원센터장

# 금융교육, 늦었다고 생각될 때 정말 늦었을 수 있다



김지수첩 신하은 (자본시장부)

나라는 경제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국민들을 위한 금융교육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선진화된 경제 흐름을 제대 파악할 수 있는 국민이 적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금융교육은 교과 내용 중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다. 사회, 경제, 기술·가정 등 과목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채 어떠한 과목 내에서 단원 단위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마저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사회 교과가 선택 교과가 되기 때문에 미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금융교육학회에서 2019년 발표했

던 '한국 성인의 금융 지식 수준과 결정요인'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지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며 향상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됐다. 논문은 성인 대상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맞춤형 금융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취약계층의 금융 지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금융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예로 들었을 때, 금융교육의 존재감이 한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미국은 청소년들을 위한 금융교육 연구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1999년부터 미국 의회는 조기 금융교육 법안을 통과시켜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부터는 재무부에 '금융교육국'을 신설해 금융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해 4월 신학기부터 고교 공식 교육과정으로

금융교육을 포함시켰다. 일본의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 주식투자·펀드·부동산 등의 금융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게 된다. 이 밖에도 다수의 선진국에서 조기 금융교육에 공을 들이고 있다.

어쩌면 올해 4월 발생한 SG(소시에테 제네랄)발 주가폭락 사태의 근원지였던 차액결제거래(CFD)와도 연관성이 있다. 무더기 하한가가 발생한 직후 피해자 단톡방 내에서는 반대매매에 대한 설명이 더러 오고갔다. 피해자 중 일부는 반대매매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로 개인(개인 투자자)가 1400만명으로 늘어나고, 주식시장이 더욱 활발해졌지만 기본적인 금융교육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진정한 경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폭 넓은 경제 활동을 지원해 줘야 하고, 그것은 금융교육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이 주목받게 되길 바란다. /godhe@metroseoul.co.kr

## 오늘의 운세 11월 21일 (음 10월 9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벌을 두려워하고서는 좋은 꿀을 얻을 수 없다. 즉 현실을 받아들여야. 48년생 말에게 쥐를 잡게 한다면? 60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음주 주의. 72년생 부부가 열음과 숯의 차이 같다. 84년생 집안 청소로 집안 분위기를.
- 소** 37년생 재혼자와의 깔끔한 포기가 필요. 49년생 겨울은 절대 먼저 옷지 않으니 마음을 다스리자. 61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나는 기분. 73년생 실패는 좋은 경험일 될 수 있다. 85년생 긴 밤이 지나면 이른 아침이 오게 마련이다.
- 호랑이** 38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일을 진행. 50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62년생 내일의 일이 걱정되어 잠이 오지 않는다. 74년생 뒷사람을 탓하지 말고 서류를 다시 살펴라. 86년생 문서는 변하여 비옥이 되다.
- 토끼** 39년생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조금씩. 51년생 나의 인생이니 내 탓 말고 공부하라. 63년생 머리가 혼란하니 중요한 결정은 미루라. 75년생 낙심할 것 없도록 기회는 다시 주어진다. 87년생 거짓말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 말** 40년생 오후 매출이 오른다. 52년생 부모님 산소를 돌보지 못하는 심정. 64년생 괴테는 아니지만 친환경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 76년생 청약을 오늘이라도 신청하도록. 88년생 약자를 표방하는 감언이성이 나를 슬프게 한다.
- 뱀** 41년생 재산증여는 신중하게. 53년생 분실수가 있으니 사람 많은 곳은 주의. 65년생 세월이 지나니 모든 것이 흐지부지 사랑도 마찬가지. 77년생 믿어주는 이가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성공. 89년생 아픈데 다시 다른 병이 발병.
- 말** 42년생 이해를 바라지 말고 상대를 설득시키자. 54년생 어린 사람과 닮음이 생기니 말조심. 66년생 조상님 제사에는 참석해야 기운이 들어온다. 78년생 술을 넘치도록 마시지 말자. 90년생 오래 사는 태양이 결혼하고 나니 고향 같다.
- 양** 43년생 사람을 적재적소에 써보니 능률이 두 배. 55년생 신세를 진 사람이 빚을 갚으려 오는 날. 67년생 천릿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시작하자. 79년생 들어가자마자 불평만. 91년생 고서를 보고 앞사람의 실패를 거울삼아 뒷사람은 경계하라.
- 원숭이** 44년생 운이 상승하는 날이니 미뤄둔 일을 처리. 56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68년생 사랑 태연은 시간 낭비로 결국 우울감만. 80년생 언제나 오늘만 같았으면. 92년생 부모님이 부자가 되었으나 교만을 멀리하라.
- 닭** 45년생 지금이라도 관리를 해야 남은 시간 후회하지 않는다. 57년생 격한 언쟁은 서로에게 피해가 온다. 69년생 가정의 화목이 언제나 고맙다. 81년생 업무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먼저 실천하라. 93년생 복이 너무 지나치면 꼭 재앙이 생김.
- 개** 46년생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58년생 살아보니 천재라도 노력 없이는 단발이다. 70년생 물고기를 잡고 싶으면 그물을 먼저 준비. 82년생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내 마음에. 94년생 수없이 부도가 났으나 조상님 덕에 재소생.
- 돼지** 47년생 신용을 지키는데 상대가 미흡하면 중지. 59년생 돈을 얻기 위해 하나를 양보. 71년생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내 실수도 튀어나온다. 83년생 과정을 중시해야 결과도 얻는다. 95년생 한 해의 계획은 봄에 있고 일생의 계획은 부지런함

## 김상회의四季 이현령비현령의 터

어느 거리를 자주 지나다 보면 업종이 수시로 바뀌는 점포를 볼 수 있다. 떡집이 새로 들어오는 걸 봤는데 몇 달 지나니 핸드폰 가게로 바뀌어 있다. 또 몇 달 뒤에는 분식집이 문을 열더니 어느 날 다시 작은 커피점으로 또 다른 가게가 되는 식이다. 그런 곳은 특징이 있는데 다른 곳에 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싸다. 싼 임대료에 끌려서 누군가 들어오지만 역시 문을 닫고 만다. 개점과 폐업을 반복하는 자리가 주인이 장사를 못 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터가 좋지 않거나 터의 입장에서 그곳의 주인 될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니 그 기운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다. 자- 한 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해보자. 꽃이 작아 열매의 결실이 보잘것없게 된다. 그럴 때 가지나 이파리에만 거름을 준다고 열매가 풍성해지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땅을 파서 거름을 줘야 할 것 아니겠는가. 즉 업종 변경으로 인테리어만 바꾼다 해서 그 터의 기운이 바뀌지 않는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임대료는 그 값을 한다고 하는데 풍수에서는 그런 터에는 임자가 따로 있는 것이다. 집도 마찬가지다. 지나치게 싸게 나온 집은 그 이유를 알아봐야 한다. 그 집에 살던 사람마다 흉사가 있었다면 보통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 나쁜 기운은 생각보다 강하여 사람의 힘으로는 그 기운 지신地神을 이기기가 힘들다. 사주가 좋다고 해도 맞지 않는 그곳에 자리 잡으면 풍파에 시달린다. 반면 필자가 알고 있는 어떤 집은 화재 사고를 겪었다. 그런데도 집주인은 재물도 일궈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했다. 그 경우는 그 터의 기운이 확 바뀌어야만 할 때 일어나기도 하는 자연현상이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종교적 과학적 실체적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 하지 않던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8	5							1
			4			5		
	2				5			4
		3		5				7
			3		9			
	6			8		1		
9			5					1
		2			1			
5						4		6

###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열과매를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6	7	2	8	2	8	1	9
2	9	8	1	7	6	2	8	9
2	1	8	9	9	7	2	6	6
9	8	1	7	8	2	6	9	2
8	7	9	6	2	8	1	9	2
6	2	2	9	9	1	8	8	7
7	9	6	9	1	8	2	9	6
8	8	9	2	2	7	9	6	1
1	2	2	8	6	9	9	7	8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31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1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건강 관리하면 포인트까지 '쑥쑥' 서울시, 손목닥터 7만명 추가모집

ICT 기술 이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 참여도 따라 최대 10만 포인트 지급



서울시는 더 많은 시민의 일상 건강 관리를 독려하고자 '손목닥터 9988' 참여자 7만 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민 모두 99세까지 88(팔팔)하게 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손목닥터 9988은 정보통신 기술(ICT)을 통해 시가 선도적으로 시작한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이다.

추가 모집은 두 차례로 나눠 진행한다. 오는 27일부터 스마트워치를 제공받아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5만 명을 모집하고, 내달 18일부터는 개인 스마트워치 또는 휴대전화(스마트폰)로만 참여를 원하는 시민 2만 명을 선발한다.

1차 5만 명 모집은 손목닥터 9988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19~75세(1948년 1월1일 ~2004년 12월31

일 출생자)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직장인, 대학생,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자는 스마트워치 또는 전용 앱을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소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최종 승인된 참여자에게 신청자에 한해 건강관리도우미 스마트워치를 지원하고, 전용 앱을 통해 건강 활동 데이터를 수집·분석한 후 비대면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달 18일부터는 손목닥터 9988 전용 앱이 정식 개설돼 참여가 더욱 편리해진다. 그간 누리집(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지만, 전용 앱으로도 참여 신청

이 가능하다.

시는 상대적으로 집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취약계층을 별도 모집해 참여율을 높이는 등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가 필요한 출산모,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보건소 대사증후군 센터 등록자, 신체활동 독려가 필요한 중장년 1인 가구 및 고립 은둔 청년과 어르신 등이 대상이다.

손목닥터 참여자에게는 건강 활동 참여도에 따라 6개월 동안 1인당 최대 10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걷기만 해도 하루에 200포인트를 주고, 주 3회 이상 꾸준히 걸으면 추가로 500포인트를 적립해준다. 건강활동으로 최대 8만8200포인트를 쌓을 수 있고, 홈트레이닝, 명상 등 서비스에 참여하면 1만1800포인트를 더 모을 수 있다.

포인트는 '서울페이머니'로 전환해 병원, 약국, 편의점 등 서울시내 11만여 개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면 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이주호, 전남 지역 방문해 교육특구 설명회

글로벌대 간담회 참석, 비전 논의 지역 주도 교육혁신 적극 지원할 것

교육부는 오늘 지역 주도 교육혁신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지역을 방문해 글로벌대 간담회와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전남)'를 개최하고, 나주 혁신도시의 교육현장을 방문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개최되는 글로벌대 간담회에 참석해 이병운 순천대 총장을 비롯한 대학 및 지자체, 지역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전라남도의 혁신 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 대학의 비전·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계적인 특화분야 강소지역기업을 육성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순천대의 혁신 기획안과 실행안 마련에 참여했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학교 교직원, 지역기업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학생대표로 순천대학교 총학생회장도 참여한다.

글로벌대 간담회 이후 이주호 부총리는 전남교육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전남)'에 참석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지역 주도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지역인재의 양성과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지난 2일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전남)'를 시작으로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한 16개 시도를 직접 방문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뿐만 아니라 교육발전특구와 연계 가능한 교육부의 주요 교육개혁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현장의 사례를 지자체 관계자가 직접 공유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 글로벌 대학 등 교육개혁 정책을 통해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교육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내일부터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전액 지원' 1~3구간 50만원, 4~6구간 30만원

##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첫째 자녀는 700만원 지원 둘째 이하 자녀는 등록금 전액 지원	→	모든 자녀에 등록금 전액 지원	→
1~3구간 지원단가(연간)	520만원	→	570만원	→
4~6구간 지원단가(연간)	390만원	→	420만원	→

자료/교육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오는 22일 9시부터 12월 27일 18시까지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2024학년도에는 국가장학금 혜택이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둘째 이하 자녀

들만 등록금 전액을, 첫째 자녀들은 700만원까지만 지원받지만,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또한,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단가는 2023년 대비 9.6%(50만원), 4~6구간의 지원 단가는 7.7%(30만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1~3구간의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520만 원에서 570만원

으로, 4~6구간은 39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오른다.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앱을 활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수혜가 가능하다. /이현진 기자

# 파주 장단콩 축제 24일 임진각서 개막

먹거리에 다채로운 체험까지

파주장단콩 및 파주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제27회 파주장단콩축제가 '웰빙명품! 파주장단콩 세상!'이라는 주제로 24일부터 26일까지 파주시 임진각광장에서 개최된다.

올해 파주장단콩축제는 '알콩(불거

리) '달콩(떡거리)' '놀콩(놀거리)' '살콩(살거리)' 4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알콩'은 파주장단콩전시관, 장단콩요리경연대회, 파주시민 거리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말한다.

'달콩'은 파주장단콩을 활용한 가공음식 먹거리마당과 파주시새마을회, 한우협회 등 주민참여형 전문음식점을 통

해 제공되는 먹거리를 말하며, '놀콩'은 꼬마메주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인 놀거리를 의미한다.

마지막 '살콩'은 파주장단콩을 비롯해 농특산물 판매장과 가공품 판매장, 시골 장터 분위기를 재현한 재래장터 등이 진행되는 살거리를 말한다.

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문산역과 임진각 행사장까지 순환버스를 수시로 운영한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서울시, '203% 고금리' 불법대부 일당 검거

영세업자 2000여명에 폭리 챙겨 10여년 불법행위... 69억 부당이익

서울 동대문 등지에서 10년 넘도록 불법대부업을 하며 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덩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1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범 A씨 등 일당 5명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동대문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 등에 불법대부업 전단지를 배포한 뒤 급전이 필요한 영세업자 2000여명에게 연 최고 203%의 고금리

를 받아 69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행정기관의 단속 등에 대비해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대출내역을 50%만 장부에 기재하는 등 치밀하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10년 이상 불법행위를 자행해 온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적발된 불법대부업자 A씨는 과거 2차례에 걸쳐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덩미를 잡혔다.

서울시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취한 이자 69억원을 범죄 수익금으로 보고 추정보전을 신청해 9월말 법원으로 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는 전국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의 추정보전금액 중 최대규모이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11월 21일 (화)  
음력 : 10월 9일

수도권 날씨  
2 ~ 14°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연천 -2/13  
동두천 -1/14  
가평 -2/13  
파주 -2/13  
서울 2/14  
양평 -1/13  
인천 3/13  
수원 2/14  
용인 2/14  
평택 -1/14

백령도 9/14

해돋이 / 07:17 | 해질 / 17:1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뉴스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日방위상 “北 정찰위성 발사 강행 가능성”  
▲“푸틴, 22일 G20 화상 정상회의의 참석...오랜만에 서방 정상 만날 것” /사진 뉴시스

▲中 휴대폰 수출, 7년간 5억대 이상 감소  
▲올 1~10월 중국내 외국인투자 기업 전년비 32% 증가



▲KDI, 중동·북아프리카서 韓 스타트업·중소 발전 경험 공유  
▲“투신 막기 위해”...美금문교 아래 측구장 7개 면적 그물망 설치 /사진 뉴시스



현대차그룹  
글로벌 실적 견조  
친환경 전략 주요  
03



Life

CGV 매점  
재미·가치소비 즐길  
복합문화 공간으로  
L1



# 플라스틱 재활용, 배터리 확대... '그린 에너지'로 그린 미래

##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 SK이노베이션

“올 타임 넷제로(All Time Net Zero)’는 SK이노베이션만의 차별적이고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세상과 약속’을 하는 화두라 큰 부담이지만 ‘그 길은 반드시 가야 하고, 그것이 SK이노베이션의 기업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이 올해 초 단언한 SK이노베이션의 목표를 함축하는 말이다. SK이노베이션은 한국ESG기준원(KCGS)에서 발표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 기준에서 A+을 받은 기업으로 ESG에 늘 ‘진심’을 보여주는 SK계열사 중 하나다.

하지만 이렇게 ESG에 공을 들이는 SK이노베이션에도 ESG를 준수하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닌 것이 현실이다.

SK이노베이션은 SK그룹에서 에너지·석유화학 부문을 이끄는 곳임에도 ‘카본 투 그린(Carbon to Green)’이라는 대주제로 ‘그린 에너지&소재 기업(Green Energy & Materials Company)’으로 나아가기 위해 전 방위적으로 애쓰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



(왼쪽 여섯번째부터)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시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박성민 국회의원이 15일 울산시 남구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CLX)서 ‘대한민국 순환경제 미래를 열다’ 주제로 열린 세계 최초 플라스틱 재활용 단지 ‘울산ARC 기공식’의 첫 시작을 알리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SK지오센트릭

정유·화학사업 친환경 모델 전환 앞장  
‘카본 투 그린’ 주제로 그린 에너지 추구

지속가능한 연료 생산 기술확보 주력  
폐플라스틱 재활용 종합단지 구축도

여성 이사 비율 14%→38%로 확대  
협력사에 탄소저감 설비 도입 지원



### 동반성장-ESG CEO 세미나



①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 구성원들이 외항부두 저장탱크지역에서 배관을 점검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스팀 공급 분리로 탄소감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② SK 울산Complex에서 열린 ‘동반성장 ESG CEO 세미나’에서 유재영 SK 울산CLX 총괄(맨 왼쪽), 김양섭 SK이노베이션 재무부문장(맨 오른쪽)이 SK이노베이션의 탄소저감 설비도입 지원 사업에 선정된 협력사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 ◆ 창립 61주년, 계열사 모두가 ‘그린’ 외친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0월 13일 창립 61주년을 맞았다. 국내 최초 정유회사로 출발해 이제는 종합 에너지·화학 대기업으로 성장한 게 SK이노베이션이다. 이를 이끄는 수장은 2017년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해 배터리와 분리막 사업을 중심으로 SK이노베이션을 이끌고 있는 김준 부회장이다. 그의 지휘 아래 SK이노베이션은 기존 정유·화학 사업을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아래에는 ▲SK에너지(석유) ▲SK지오센트릭(플라스틱 등 화학) ▲SKIET(배터리소재 등 첨단소재) ▲SK에스온(석유채굴) ▲SK온(배터리) ▲SK엔무브(운환유)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액체연료) 등을 하는 계열사들이 존재한다.

각 계열사가 다루는 사업 아이템은 언뜻 봐도 배터리를 제외하고는 탄소 발생의 주범이라 불리고 있는 사업 일색이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이들 계열사에서 탄소 배출은 감소하되 기업의 역량과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 SK이노베이션은 지속가능한 연료(Sustainable Fuel)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와 기술을 확보에 주력하며 기존 석유 마케팅 역량을 기반으로 ‘에너지 솔루션&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3대 화학적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폐플라스틱 재활용 종합단지 울산 ARC(Advanced Recycling Cluster) 구축의 첫 삽을 떠 주목을 받았다. 이는 총 1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로, 완공되면 울산 ARC에서 3대 화학적 재활용 기술인 열분해, 고순도 폴리프로필렌(PP) 추출, PET 해중합을 한 자리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SK온을 필두로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사업 분야는 글로벌 생산능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해외지부 수출도 안정기에 들어서고 성장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SK온은 올해 3분기 영업손실 규모가 분할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흑자 달성에 한발 더 다가서 SK의 그린 포트폴리오에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차세대 배터리·소재 기술 등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선제적 투자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 ◆ 환경(E) 말고도 S·G까지 챙긴다

SK이노베이션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 외에도 ESG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자원소비, 환경오염 관련 환경공정 및 제품·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환경성과’ ▲고용·배당·납세를 측정하는 ‘경제 간접 기여성과’ ▲노동, 동반성장, 사회공헌, 기부, 봉사활동 등을 포함하는 ‘사회성과’로 분야를 구성해 성과 측정을 해왔다. 작년부터는 미국과 유럽, 중국 등 해외사업장에 대한 사회적 가치 측정을 시작했다. 해외사업장은 5277억원 규모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사회성과 부문과 관련해서는 2년 연속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여성 사외이사 2명을 새로 선임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전체 이사회 중 사외이사 비중은 기존 71.4%에서 75%로, 여성이사 비율은 14.3%에서 37.5%로 확대됐다.

SK이노베이션은 협력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세미나·컨설팅·대출 등을 실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전남 울산 남구 SK 울산콤플렉스에서 협력사 80여 곳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은 협력사의 ESG 경영이 정착하려면 실질적인 탄소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중소기업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탄소저감 설비 도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ESG 우수 협력사 포상으로 지난해 시작한 컨설팅에 이어 올해엔 대출이자 지원 확대, 담당자 인센티브 지급, ESG 자금 우선 지원 등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

김양섭 SK이노베이션 재무부문장은 최근 유럽연합(EU)이 공급망 실사와 공시를 의무화하는 ‘공급망 실사법’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가 곧 SK이노베이션의 ESG 역량 강화라는 인식을 가지고 관련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양희영, LPGA 최종전서 우승...통산 5번째 정상  
▲AG 이어 APBC서도 입증...‘차세대 4번’ 입지 다진 노시환 /사진 뉴시스

▲여자농구 흥국생명, 정관장 상대로 6연승·설욕전 나선다  
▲이경훈, PGA 최종전서 공동 58위...루드비그 아베리 우승



▲4년 계약 전준우 “은퇴 전 롯데서 꼭 우승하고 싶다” /사진 뉴시스  
▲축구장내 아나운서 12명, 축구종합센터 건립 성공 기부

싱싱하고 맛있는 게  
천지백가라다

[부산 자갈치시장 고영희님]

# 2030 부산세계박람회 BUSAN IS READY!

부산에서 시작해 전세계가 함께하는  
인류의 더 나은 미래가치를 위하여

## 미래, 같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합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